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7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2월 28일)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한국불교 미래 밝혀 신뢰받는 종단 변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신년회견서 밝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원행 스님. 사진=박재완기자

남북관계 개선에 종교 역할
7대 중점 종책과제도 제시
“국민 평온한 휴식처 발원”

조계종이 올해 “백만원력으로 한국불교 미래를 밝히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회의 등불이 되겠다”는 종단 운영 기조를 세웠다. 지난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은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본격화하면서 불교 위상강화와 대사회 활동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불기2564(2020)년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종무기조와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원행 스님은 먼저 “지난해 우리는 안팎으로 다사다난이라는 말 그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 그리고 한일갈등과 남북문제를 비롯한 열강들의 이해충돌 등 어느 것 하나 순탄한 영역이 없었다”며 “그 속에서 조계종은 국제행사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많은 분들을 만났다. 한국불교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저력과 희망을 확인하면서 때로는 비판과도 마주해야 했다”고 지난해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원행 스님은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종단 안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종단 구성원 모두가 한국불교의 저력과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모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부연했다.

원행 스님은 이날 가장 중요한 올해 사업계획으로 ‘남북 민간교류’를 제시했다. 남북 · 북미 정상의 만남으로 해빙무드에 접어들었던 남북관계가 최근 다시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치영역이 아닌 민간 · 종교영역에서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행 스님은 “안타깝게도 지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우리 민족의 뜻대로만 진행되도록 놓아두지 않는다. 먼 옛날 묘향산과 금강산에서, 지리산과 가야산에서 우리 민족 스승들이 그러했듯이 이제 백척간두에서 한걸음 앞으로 내딛어야 할 때”라며 “그 힘은 오로지 ‘남북의 공존과 번영, 한반도 평화정착과 인류의 화합’이라는 화두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전통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앞서 조계종이 북한과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장안사와 유점사 등 추가적인 북한사찰 복원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조계종이 보유 중인 북한사찰 문화재를 북한에 봉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북측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선다.

원행 스님은 △소통과 화합 △혁신 △승려복지 △교구중심 △문화창달 △교육과 포교 △사회 등 7대 중점 종책과제를 제시하며 미래불교를 위한 밑거름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 재임 당시 불법으로 규정한 ‘전국승려결의대회’에 참가해 해종행위자로 분류된 스님들을 사면하는 대화합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앙종회 해종특위를 거쳐 총 52명이 해종행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며, 총무원은 종정 진제 스님의 하교에 따라 대화합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다만 1994년 멸빈자 사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은 채 중앙종회와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원행 스님은 “바닥 얕은 개울물은 큰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것처럼 2020년은 화합과 혁신, 평화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사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조계종은 안정과 화합, 혁신으로 사부대중에게 한국불교의 든든한 의지처가 되고, 국민들께는 평온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클리 포커스 2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경자년 신년하례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김정숙 여사가 부처님전에 등 공양을 올린 뒤 합장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년하례법회에 동참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불교, 사회공동선 실현에 앞장을”

종단협의회, 16일 조계사서 신년하례법회

지난해 이어 김정숙 여사 동참
‘한반도 평화’ 한마음으로 기원

경자년 새해 한국불교계가 국가와 불교의 발전, 국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법석을 마련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1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64(2020)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 각 종단 지도자와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하례법회에는 지난해에 이어 김정숙 여사가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원행 스님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오는 4월 총선을 짚으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정치와 종교영역 모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김정숙 여사와 부처님전에 등 공양을 올리며 국민들이 밝은 새해를 열어 나가길 기원했다.

원행 스님은 “우리 국민들은 안전한 산업환경,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통해 더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를 희망하고 있다. 불평등, 불공정, 양극화 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을 근절하며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사회공동선 실천활동도 불교계가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간 불교계 주요 행사에 참석해 지속적으로 교류해온 김정숙 여사도 이에 공감하며 불교계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정숙 여사는 “강원도의 오래된 한 사찰 현판에 ‘설청구민(說聽俱泯)’이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다. 서로 마음의 귀를 열 때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경계가 모두 지워지는 그곳에는 갈등도 대립도 없다”며 “우리 모두 하심한다면 상생하는 세상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윤호섭 기자

국제포교사회 ‘Global포교’ 나선다

18일 정기총회서 계획 공개
템플스테이 탈피한 수행체험
말하기대회 · 해외포교 공모도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김성림)가 새해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포교’에 나선다.

국제포교사회는 1월 18일 2020정기총회 및 신년법회를 개최했다. 국제포교사회는 이주민 말하기대회와 연등회 참여 외국인 대상 불교문화 투어 등을 통해 활발한 포교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외국인 대상 불교문화 투어다. 지난해 국제포교사회는 연등회 체험 외국인을 중심으로 템플스테이를 2차례 열고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 바 있다. 시점은 연등회 이후 5월 30일로 논의되고 있다.

국제포교사회는 “그동안 연등회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연등회만 참여하여 아쉬움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템플스테이에 이어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른바 투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한다. 예전 이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남산과 롯데타워 투어처럼 한국불교 신행의 현장인 도심 주요사찰을 비롯해 불교문화 현주소를 살필 수 있는 곳들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9년 중단된 이주민 말하기 대회 또한 새롭게 재개된다. 국제포교사회는 2017년과 2018년 스리랑카, 네팔, 태국, 캄보디아 등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10월 중으로 열릴 이주민 말하기 대회는 현재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신청에 들어갔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지난해 독일에서 시작된 해외포교의 선사례를 이어가기 위한 공모사업도 진행된다. 기초불교영어 강좌도 1월 4일 56기 입재에 이어 4월 4일 57기, 7월 4일 58기 입재가 진행된다.

김성림 회장은 “공부하고 수행한 결과를 중생구제의 일환으로 정체성에 부합하는 해외포교로 이어지게 하고자 한다”며 “재정문제로 많은 인원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지만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올 한 해 새로운 전법포교를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사부대중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www.boryeon.com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철거–보관–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Weekly Focus

조계종 신년기자회견

#남북 #불사 #문화 #나눔

남북교류 비장의 카드 '조계종 보유 北문화재'



1월 15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1. #남북—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지난해 2월 강수린 북한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을 만나 금강산 신계사에서 템플스테이시설 건립 부지를 상의하는 모습.

2. #불사—올해 착공될 계룡대 3군본부 영외법당 조감도. 조계종은 이외에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세종시 문화체험관 등 다양한 대형불사를 추진한다.

3. #문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오는 12월 결정된다. 연등회 참가자들이 연등을 들고 밝게 웃고 있다.

4. #나눔—소외계층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펼쳐진 나눔 템플스테이에 지난해 2만4000여 명이 참가했다. 조계종은 올해 이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경자년 새해 한국불교 장자 종단 조계종의 주요 사업계획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밖으로는 사회 흐름을 반영한 국제외교 뒷받침과 소외된 이들을 보듬는 자비의 손길을, 안으로는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할 대형불사와 불교문화 창달이라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세웠다. 조계종의 신년기자회견 내용을 키워드별로 정리했다.

남북교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꾸준히 주목하는 이슈다. 2000년대 조계종은 조선불교도연맹, 현대아산 등과 약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하며 대북교류의 기틀을 다졌다. 지난해에는 남북 해빙무드에 맞춰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얻지 못했다.

올해에는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새로운 카드로 '북한사찰 문화재 이전'을 제시했다. 조계종은 2018년 1월 일본 경매에서 평양 법운암 칠성각에 소장돼 있던 '치성광여래도'를 환수했다. 법운암은 평양시 만경대 구역 용봉리 용악산에 있는 암자다. 고구려시대 창건돼 조선중기에 중건됐으며, 현재 본전과 칠성각, 독성각, 산식각, 오층석탑 등이 있다.

법운암 치성광여래도는 경성지역에서 활동한 화승 예운당 상규 스님이 그렸으며, 예운 스님의 마지막 불화로 알려진 '표충사 삼세불회도'보다 5년 뒤에 조성된 것이다. 조계종은 예운 스님이 이를 조성할 때 직접 밑그림인 불화 초본을 내고, 보조화원을 대동하지 않은 채 혼자 불화를 완성할 정도로 심혈인 기울인 작품으로 보고 있다.

이에 조계종은 2003년 법운암의 전각 단청불사를 지원한 인연에 따라 본격적인 남북불교교류를 추진할 전망이다. 현재 법운암 칠성각에는 조계종이 환수한 치성광여래도를 근래에 재현한 모사본만이 모셔져 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한반도 종정선언과 평화정착을 위한 기원대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북한 종교계 주요인사를 초청하고, 국내 각계각층이 참여하도록 독려해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살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불사가 시작된다. 수년 전부터 기획해온 것부터 최근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통해 추진한 것까지, 올해에는 손가락으로 세기 힘들 정도의 대형불사들이 본격 추진된다. 가장 이른 불사는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착공식이다. 3월 말 100여 명의 대표단이 부다가야를 방문, 성도성지 부다가야의 한국사찰 건립을 기념한다. 아울러 전 집행부에서 이어져온 세종시 한국불교체험관 건립은 3~4월 중 착공에 들어간다. 이에 따른 불교문화재 보존처리센터는 부지변경과 후속절차를 마무리해 연말이나 내년 초 불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하나인 계룡대 3군사령부 영외법당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올해 안에 첫 삽을 뜰 것으로 전망된다. 종단 불교요양원은 현재 부지확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부지가 정해지는 대로 건립불사를 시작한다. 위례신도시 포교당 건립사업은 현재 봉은사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는 대중과 함께 호흡한다는 점에서 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치다.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문화는 바로 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다. 이는 올해 12월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회의서 결정된다.

연등회의 인류유산 등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돼 왔다. 하지만 김장, 제주해녀문화, 씨름 등에 몇 차례 기회를 양보하며 내실을 다졌다. 2017년에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과제를 보완하고 연등회의 가치를 되새겼다.

연등회의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불교는 2009년 영산재에 이어 두 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제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20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중국(38개), 일본(22개)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숫자다.

이외에 조계종은 지난해 파키스탄 정부와 교감한 '라호르박물관 석가모니 고행상'의 최초 한국 전시도 추진한다. 다만 조계종 단독으로 추진할지,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나눔은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된다. 특히 한국불교만의 고유문화인 템플스테이를 통해서다. 템플스테이는 2000년대 초 외국인들의 한국전통문화 체험을 돕기 위해 시작됐으나 최근에는 사회공헌 일환으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경상공찰관, 소방관, 도박중독자, 다문화가정, 보호관찰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기획한 '나눔 템플스테이'는 사회에서 각광받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났다.

지난해에만 전국사찰에서 약 2만4000명이 참가하면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올해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템플스테이를 보다 확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입법부가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다시금 촉구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1월 16일부터 격주 목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했다.

기자의 펜

세부계획 부족했지만 주요불사 청사진 제시

올해 조계종 신년기자회견에는 대통령 연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연설용 프롬프터가 처음으로 도입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원행 스님이 안경을 쓰고 회견문을 낭독하던 것보다 한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덕분에 기자회견도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을 줬다.

반면 주요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정리되지 않은 것이 많아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핵심사업인 대북교류의 경우 평화기원법회 일정이나 주요인사 초청명단 등이 정해지지 않았고, 파키스탄 석가모니 고행상 전시 역시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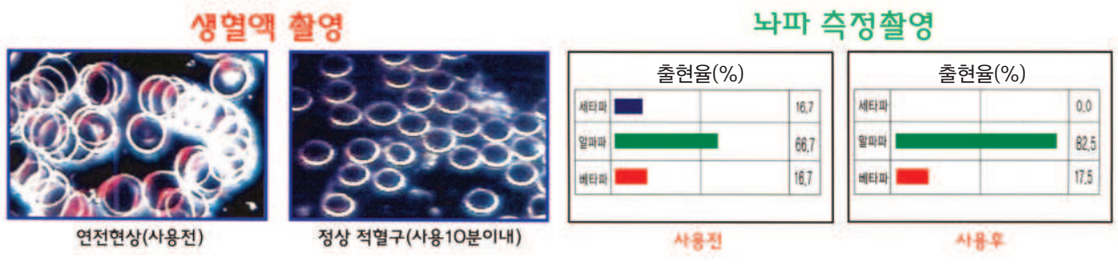
그렇지만 조계종이 내세운 대북교류 카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그간 계속 지연돼온 주요불사의 청사진이 드디어 나왔다는 점은 과거 여느 기자회견보다 값지다고 하겠다.

윤호섭 기자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양치후 먹었더니 식중독·배탈·설사가 없어지는 치약

원래의 세정목적 외에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대장균(식중독균), 포도상구균(화농성세균) 99.9% 정균 감소 가능과 탈취 75%, 음이온 134cc, 원적외선방사 90.2% 의 기능으로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체험수기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사용후 6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단 한번도 몸살, 감기를 앓아누워본 적이 없으며 안경을 써야 신문을 봤는데 현재는 안경없이 신문을 보고 코막힘이 없고 가래나 누런코도 나오지 않습니다.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25,000원 ●순비누:120g 개당 10,000원

양치후 뱉어내지않고 먹었더니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숙취에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며 술이 깨면서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치약)는 구강건강(잇몸 붓는것, 피나는것, 아픈것, 이시린것 등)은 기본이고 잇몸이 튼튼하고 치태가 끼지않고 구취가 없으며 하루종일 입안이 개운합니다.
식후에 바로 양치하고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 치약 120g 할인가 개당 15,000원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2020 설

나눔의 '설' 커지는 '福'

설 앞둔 불교계 자비행 활발

조계사 1200명 떡국나눔
부산선 바자회열고 보시
탈북민 합동차례도 눈길

노덕현 · 하성미 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불교계의 자비나눔행이 활발하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월 16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해 행복나눔 가피봉사단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떡국 나눔을 진행했다.

이날 떡국나눔을 위해 조계사 측은 방앗간에서 직접 떡을 공수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센터를 찾아 행사를 준비했다. 조계사가 준비한 떡국은 총 1200인분으로 주지 지현 스님과 봉사자들이 반찬 배식부터 떡국 전달까지 진행했다.

이와 함께 조계사는 1월 22일 서울 종로구 내 한부모지원시설과 장애인시설, 보육원 등과 종로구청으로부터 추천받은 소외 이웃 1000가구에 떡국 떡 1.5kg과 초코파이를 전달했다.

부산지역에서는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이 1월 20일 부산진구청장실을 방문해 관내 장애인, 독거어르신,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총 3000만원에 달하는 쌀 10kg 910포대를 전달했다.

부산사하불교연합회(회장 법인)도 1월 14일 부산사하구 사하사암무료급식소에서 떡국나눔을 진행했다. 사하구불교연합회는 떡국 떡 200인분으로 점심공양을 마련해 대접했다. 떡국떡은 연합회 회원 스님뿐 아니라 한우리요양병원 등에서 십시일반 모은 것이다.

회장 법인 스님은 "이곳을 찾아주시는 어르신들이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계속 뵙기를 바란다"며 "올해 모두 행복하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범어사 어린이청소년법회 회원들이 작장마을 경로당과 각 가정을 방문해 고령의 어르신 20명에게 쌀 총 20kg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쌀은 어린이청소년들이 직접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의미를 더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1월 16일 떡국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창원불교연합회(회장 월도)는 1월 17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제30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을 열고 한부모 및 다문화세대, 독거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떡 등 다양한 설 용품과 함께 설맞이 자비성금 5000만원을 후원했다.

군산 성흥사(회주 송월)는 1월 16일 군산교도소에서 합동 설차례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합동 설차례에는 교정위원인 송월 스님과 함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군산사암연합회 소속 스님 및 불자들이 참여했으며, 교도소 수용 500여명이 참여해 차례를 올렸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관에서도 설명절을 맞아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부산 용호종합복지관(관장 이춘성)은 1월 21일 남구 관내 소외계층 400세대에 떡과 과일, 생필품을 전달했으며, 22일 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전통 윷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다.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복주머니 판매를 통해 수익금을 전달했다.

화성 서부노인복지관(관장 안효미)도 1월 9일 복지관에서 이용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떡국을 대접했다. 또 1월 13일 세대소통작은음악회를 열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설명절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1월 22일 분관 무악센터서 200여 어르신들에게 떡국 나눔을 진행하며, 경로당 60개소에 쌀과 곶감 음료등을 전달했다. 또 600여 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에게 식품키트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설 당일의 합동차례와 행사도 열린다.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법원)는 1월 25일 오전 10시 2층 큰법당에서 설 합동차례를 진행한다. 국제선센터는 2013년부터 종교에 관계없이 명절마다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해 합동차례를 개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연혁

노무현 정부
- 2007년 12월 12일 발의
- 2008년 2월 12일 상정
- 5월 29일 제17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이명박 정부
- 2011년 12월 2일 권영길 의원 등 10명 발의
- 2012년 5월 29일 제18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 11월 6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 발의되나 2016년 제19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 2013년 2월 12일 김한길 의원 등 51명 발의.
- 4월 15일 보수 기독교계 집단 협박 및 항의로 본회의서 철회
- 2013년 2월 20일 최원식 의원 등 12명 발의
- 4월 24일 보수 기독교계의 압력으로 본회의서 철회

박근혜 정부
- 2014년 10월 9일 UN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문재인 정부
- 2017년 2월 13일 대통령 후보 시절 보수 기독교계와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 발표

원행 스님, 군장병 첫 十善戒 수계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서
군종특별교구 3000명 법회

2020년 경자년 새해 군장병들을 위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새롭게 마련한 십선계가 처음으로 수계됐다. 첫 수계법사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나섰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월 11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 십선계 수계법회'를 훈련병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봉행했다. 십선계 수계법회는 기존 오계 중 장병들이 외박 · 휴가기간 중 불음주를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라 불음주를 제외한 4계에 험담 · 이간질 · 탐욕 등을 금하는 6가지를 더한 세속인이 지켜야 할 십선계를 도입했다.

이 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군장병들에게 십선계를 하나씩 설한 뒤 수계공덕으로 일평생 행복한 삶을 살길 기원했다.


원행 스님이 훈련병 대표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최근 군법당에서는 향 연비가 아닌 도장 연비가 이뤄진다.

원행 스님을 비롯해 20여 명의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국장단스님들은 장병들에게 연비하며 십선계를 지키며 참된 불자로 거듭날 것을 기원했다. 이에 장병들은 합장한 채 "삼귀의를 하고 십선계를 받은 저희들은 이 공덕으로 삼악도와 팔난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일을 성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과 각 군 군승법사를 비롯한 군종교구 관계자들은 계룡대 3군본부 영외법당 신축불사를 위해 백만원력 결집불사 약정기금 3억6500만원을 원행 스님에게 전달했으며, 원행 스님은 호국 연무사 격려금 1000만원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수계법회에는 원행 스님과 혜자 스님, 김인건 육군훈련소장, 김한태 육군부사관학교장, 군종병과장 이정우 법사 등이 함께했다.

논산=윤호섭 기자

상월선원, '방함록序' 복원 · 공개

용상방 · 방함록서, 혜거 스님 직접 정리 · 휘호

지금은 사라진 선원 방함록의 서문이 복원돼 공개됐다.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 도감 혜일 스님은 1월 15일 경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월선원 동안거 소임을 적어놓은 '용상방(龍象榜)'과 '방함록서(芳啣錄序)'를 공개했다.

용상방과 방함록서는 조계종 대종사인 혜거 스님(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이 직접 내용을 정리하고 글을 썼다.

이날 눈길을 끈 것은 '방함록서'다. 방함록은 안거 대중의 인적 사항 등을 적어두는 기록으로, 방함록서는 방함록 서문으로 사찰 연혁과 특징, 안거대중, 발원 등이 담겨있다.

과거 개별 사찰에서 방함록을 작성할 때에는 이 같은 서문이 포함됐으나 현재는 실전됐다.

도감 혜일 스님은 "11월 11일 결제 이후 혜거 스님을 찾아뵙고, 용상방과 방함록 작성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언론 등을 통해 9명 스님들의 용맹정진을 접한 스님은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셨다"면서 "용상방은 선원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하셨고, 방함록서는 스님께서 어릴 적 봤던 것을 복원해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감 혜일 스님이 방함록서를 공개하고 있다.

복원된 '방함록서'는 상월선원의 설립 배경과 의미, 게송 등을 한 선객과의 대화를 통해 풀어내고 있다.

혜일 스님은 "수좌 정묵 스님이 선원 이름을 짓고 종정 진제 스님께서 현판을 내려주셨다. 이번에는 혜거 스님께서 용상방과 방함록서를 정리해주셨다. 여러 어른들의 도움으로 여법한 결사 도량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2월 7일 회향까지 결사가 원만회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스님들 무기한 기도회

격주 목요일마다 정부청사서

인종, 종교, 성적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무기한 기도회를 이어간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은 1월 1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기도회'를 열었다. 앞으로 사노위는 격주 목요일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를 봉행한다.

지난 2007년 12월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제18, 19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이어졌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집단 협박과 항의로 수차례 철회됐다.

이날 스님들은 염불기도와 율동 퍼포먼스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부 부처와 국회에 촉구했다.

사노위원장 혜찬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해 평등, 사해 일미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도회를 시작한다"면서 "차별금지법이 하루 속히 제정돼 누구도 차별과 멸시 혐오를 받지 않도록 가피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어린이 포교 성공열쇠 '눈높이'

천태종 부산 광명사 기획 · 원력 · 봉사 3박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광명사가 적극적인 어린이 포교에 나서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회에서 어린이들이 법회를 장엄하는 모습.

주지 개문 스님 어린이에 관심
행사 기획부터 '쉬운 불교' 고민
대학생 숙소 제공, 동참 이끌어
청장년 포교로 자연스레 이어져

타종교에 비해 청소년 · 영유아층 신도가 적은 불교에서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지만, 여전히 법회와 수련회 등 어린이를 위한 기본 프로그램이 사찰에서 사라지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 천태종 광명사가 어린이 포교에 박차를 가하고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천태종 광명사(주지 개문)가 1월 4일 처음으로 개최한 '제1회 어린이 겨울불교학교'에는 100여 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모여들었다. 사찰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이뿐 아니라 부산 각 지역에서 참여한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다. 이와 함께 매주 일요일 열리는 정기법회에는 어린이 30여 명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약 1년 6개월 전만 해도 법회에 참석한 어린이는 3~5명이 최대인원인 광명사였다. 광명사는 어린이 포교에 힘을 쏟은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처음 개최한 수련회도 참석인원이 높아 어린이 포교의 성공 열쇠를 제시할 전망이다.

광명사 어린이 포교가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주지 개문 스님의 원력' 그리고 '대학생 봉사' 등 세 박자가 맞았기 때문으로 사찰 측은 보고 있다.

광명사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기획단계부터 철저히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번 어린이 겨울불교학교에서도 육도윤회를 이해시키기 위해 영화 '신과 함께'에서 영감을 얻어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영화 '신과 함께'에서 나오는 지옥세계를 주제별로 잡아 어린이가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끌고, 자칫 무섭고 어려울 수 있는 사후 세계에 대한 설명이 게임과 체험으로 재미있게 담기도록 했다. 아울러 한빙지옥, 철상지옥, 아귀도 등 각 지옥세계에 맞도록 효와 불살생, 불망언 등 부처님 가르침을 강조했다.

정기법회에서도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동지, 부처님오신날, 정월대보름 등 각 계절 절기 및 행사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다. 아이들의 연령대와 시시각각 바뀌는 관심사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봉사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도움에 나선 이들은 바로 부산대 학생들이다. 광명사는 현재 부산대 학생들을 위한 숙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숙소에서 지내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뒷받침해주면서 어린이 법회가 수월하게 진행됐다.

박성현 지도교사는 "대학생들이 3명씩 조를 이뤄 방문해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주고, 봉사를 담당해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어려움이 없었다"며 "대학생들도 불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 청년포교 현장까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현 지도교사는 광명사가 어린이 포교에 박차를 가한 건 주지 개문 스님의 원력과 지도법사 스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박 지도교사는 "주지스님이 어린이 포교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시설 지원 등 아낌없는 후원이 이어졌다"며 "아울러 크고 작은 행사에 어린이들이 참여하도록 열린 마음으로 이끌어주셔서 어린이들의 활동이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사 어린이회는 지난해 광명사 신도회 창립 50주년 행사와 부처님오신날 등 굵직한 행사에 참여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어린이들의 활약이 신도들의 눈길을 끌면서 광명사 노불자들도 어린이 법회를 인식해 손자 · 손녀 등 가족들을 법회에 데리고 오는 계기가 됐다.

박 지도교사는 "광명사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유치원 졸업 후 학교에 진학하면 불교적인 가르침이 흩어져 아쉬웠는데 이제 아이들의 관심이 높아져 무엇보다 기쁘다.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사찰에서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울산환경연대 대표 천도 스님 취임

1월 11일 신임 상임대표로 "의식 있는 불자 양성할 터"

울산 자연환경 지킴이 울산불교환경연대에 새로운 상임대표로 언양 백련사 주지 천도 스님이 취임했다.

울산불교환경연대는 제2대 상임대표 이 · 취임식을 1월 11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개최했다. 이 · 취임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소개 △경과보고 △공로패 및 임명장 수여 △이임사 △취임사 △격려사 △축사 △임원진인사 △불교환경선언문 및 환경오계 낭독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했다.

신임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한반도의 기후변화와 호주의 산불을 볼 때, 환경문제는 지구공동체 모두가 떠안은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기후와 환경문제의 당면과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생명사랑과 자비행을 실천하고, 녹색사찰협약과 환경법회를 통해 의식 있는 불자들을 양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이어 "교육과 환경 캠페인 등으로 사회 대중과 여러 시민단체들과도 협력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아름다운 환경연대가 되어 보살행의 꽃을 피우겠다"고 다짐했다.



울산불교환경연대 새 임원진. 사진 앞줄 가운데가 신임 상임대표 천도 스님이다.

울산불교환경연대는 불교 연기적 세계관과 동체대비 사상을 바탕으로 2018년 4월 10일 창립됐다. 이후 사찰 경내 자연수호와 일회용품 줄이기, 분리수거 자원재활용 캠페인 등 실천과제를 실천해오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불교교육대학 "졸업은 곧 나눔"

졸업식서 지역 중 · 고등학생에 장학금 600만원 전달

조계종 울산사암연합회 부설 울산불교교육대학(학장 진응)은 1월 14일 제38기 불교교리반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교리반 28명이 졸업했으며, 제15기 꽃꽂이반 6명과 제2기 불교무용반 8명의 수료식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동문회는 장학금 총 600만원을 지역 중 · 고등학생 12명에게 전달했다.

이사장 산옹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곧 베푸는 마음을 알고 실천을 하는 것"이라며 "항상 오늘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학장 진응 스님은 "이번 한 해 울산불교의 오랜 전통과 좋은 강사진으로 구성된 불교대학을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힘찬 시작"이라며 "졸업생 여러분은 초발심을 잊지 말고 배움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장 진응 스님이 교리반 졸업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 공고

본 종의 승적을 취적한 모든 승려는 승려법 및 승려분한신고시행령에 의거하여 10년 주기로 분한신고를 하여 출가독신으로 청정한 수행가풍과 엄정한 계율 및 청규를 지키는 승려임을 확인하여야 하오니 다음과 같이 **'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단은 스님들께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복지 혜택을 드리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승려복지법에 의거하여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정기분한신고 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같이 제출 받습니다.

- 다 음 -

●신고기간 : **불기2564(2020)년 2월 3일(음 1.10) ~ 4월 30일(음 4.8)**

●신고대상 :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모든 승려**

●신고서류

가. **내국인 및 외국영주권자(대한민국 국적자)**

1) 분한신고서(소정양식) ····· 1부
2) 신상명세서(소정양식) ····· 1부
3) 자필유언장(인감날인)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 1부
4) 인감증명서 ····· 1부
※유언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주민센터에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5) 기본증명서(상세본) ·····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 1부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 1부
8) 주민등록 초본(모든변동사항 포함) ····· 1부
9) 주민등록 등본(모든변동사항 포함) ····· 1부
10)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1가지) ··· 1부
※신분증의 증명사진은 승복을 착용해야 함
11) 현 승려증(분실인 경우 분실명기)
12) 구비서류 부착 외 별도 증명사진(3cm×4cm) ····· 3매
※ 촬영한지 3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삭발염의 필할 것
-구족계 수지자(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 사미계 수지자(만의/장삼 수한 사진)
13) 1995년 이후 출가자로 구족계 미수지자의 경우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 1부
14)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소정양식) ····· 1부

나. **외국인 및 외국국적취득자 또는 시민권자**

1) 분한신고서(소정양식) ····· 1부
2) 신상명세서(소정양식) ····· 1부
3) 자필유언장(본인서명)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 1부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1부
※ 주민센터에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5)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기간만료 전) ····· 1부
6) 현 승려증(분실인 경우 분실명기)
7) 구비서류 부착 외 별도 증명사진(3cm×4cm) ····· 3매
※ 촬영한지 3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삭발염의 필할 것
-구족계 수지자(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 사미계 수지자(만의/장삼 수한 사진)
8) 1995년 이후 출가자로 구족계 미수지자의 경우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 1부
9)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소정양식) ····· 1부

●**승적말소자·직권제적자 분한신고 시 추가 제출서류**
2010년 분한신고 미필로 인한 **승적말소자** 및 2회 이상 분한미필로 인한 **직권제적자**는 별도의 교구심사를 거쳐 총무원에 상신하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1) 분한신고미필사유서(소정양식) ····· 1부
2) 사찰거주확인서(소정양식) ····· 1부
3) 10명 이상의 은사 또는 사형사제, 도반등의 수행확인서(소정양식) ····· 1부
4) 승납재기산 동의각서(소정양식) ····· 1부
5) 제적등본 ····· 1부
※ 제적등본은 출가년도 이후 분가로 인한 독호적, 호주승계, 본적지 변경 등에 의해 호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변동 전 제적등본을 추가 제출해야함

●**서류접수처** : 신고인의 재적교구본사에 분한신고서류를 접수함
(재적교구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 직할교구사무처에 접수)

●분한신고 수수료
1) 2010년도 분한신고를 필한 승려 : **없음**
2) 분한신고 미필로 인한 승적말소자 및 직권제적자 : **10만원**
※ 수수료는 재적교구본사로 납부함

●주의사항
1) **신고기간 내에 분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승려자격에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승려법 제34조의 7(분한심사의 처리) 제1항에 의거하여 승적을 자동 말소합니다.**
2) 승적 말소란 본 종 승려로서의 모든 권리를 제한함을 뜻합니다.
3) 모든 작성서류 및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 및 위 · 변조 사실이 확인될 시 종법에 의거하여 승려로서의 권리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4)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분한신고 양식 다운로드
조계종홈페이지(www.buddhism.or.kr.) → 공지사항 → '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공고' 참고

●문의처
각 교구본사 종무소
직할교구사무처 02)2011-1930~1932
총무원 총무부 사찰교무팀 02)2011-1703~1705

불기2564(2020)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시행 공고

■2011년도 제정된 승려복지법에 의해 시작된 승려복지제도가 2020년 올해 10년차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종단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시는 스님들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과 함께 요양비, 국민연금보험료, 정밀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약 2,600여명의 스님들께 11억여 원 이상을 지원해 드렸고, 이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제도 운영과 보다 많은 스님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를 시행하오니, **승려분한신고 서류와 함께 본인기본부담금 납부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근거종법 : 승려복지법
●납부대상 :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승려
●납부금액 : 월 10,000원
(단, 구족계 수지한지 5년 이하인 승려는 월 5,000원)
●납부개시 : 2020년 7월부터(사전 선납 가능함)
●납부방법 : 계좌이체
(소정양식의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신청서 작성)

□ **CMS** (자동이체 : 승려복지회에서 7월에 출금 등록)
□ **계좌이체**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
국민 023501-04-262677 농협 301-0262-9883-41
예금주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계좌이체 시 반드시 임금하시는 스님의 법명과 성명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2020년도 승려분한신고 서류와 함께 제출
●소정양식 : 조계종홈페이지(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공고 참고)
●문 의 : **총무원 승려복지회 02)2011-1726~7, 010-2926-1726**

불기2564(2020)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

불교권을 열린논단

계간지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공동주관하는 제106회 열린논단이 '안녕? 동남아 해양부 불교문화'를 주제로 1월 16일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논단은 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한국불교 최초로 동남아 해양부 불교에 대한 현황과 전래과정 등에 대해 밝혔다. 이날의 강연 내용을 독자들에게 요약 발췌해 지상 중계한다.

정리=노덕현 기자

'해양불교문화' 전법 새 토대

주제 : 동남아 해양부 불교문화

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



세계 최대 불교사원인 보로부두르 사원의 모습. 찬란했던 동남아 해양불교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다.

해양 무역국가 사상 제공
세계최대 사원 탄생 배경
남꼬 불교교세 신장 가능

해양불교 중심 '말레이 반도'

오늘날 대륙부 동남아는 불교 문화권으로 자리잡았고, 해양부는 이슬람과 가톨릭 문화권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해양부 동남아에서 불교문화를 다룰 국가는 스리비자야 왕국 시대 이래로 '믈라유' 문화권의 큰 물결을 이룬다.

'믈라유'는 오늘날의 말레이 반도를 말한다. 현재 해양부 동남아 불교문화가 잔존해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4개국으로 한정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필리핀을 포함해 5개국으로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중심은 말레이 반도다.

고대 말레이 평정한 '스리비자야'

해양부 동남아 최초 불교왕국인 스리비자야왕국(650-1377)은 일찍이 수마트라와 말레이 반도 사이의 말라카 해협의 양안(兩岸)에 산재됐던 수많은 군소 무역왕국을 평정했다. 수마트라와 말레이 반도뿐만 아니라, 미얀마와 태국 남부로부터 쟈바와 칼리만딴(보르네오)을 거쳐 술루(Sulu) 해와 필리핀 군도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

무역왕국 스리비자야는 영토 확장을 통해서 왕국의 통치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교역 행위를 통한 상호 이익제고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해안 요지의 군소 무역왕국들은 큰 부담 없이 스리비자야 왕국의 영향권으로 들어왔다.

唐이징 스님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

당(唐)나라 이징(義淨) 스님은 이러한 스리비자야 왕국으로 구법행을 떠났다. 스리비자야왕국 여행기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과 〈남해기귀내법전(南海寄歸內法傳)〉이 이징 스님이 남긴 기록이다.

이징 스님은 스리비자야왕국에서 1000명이 넘는 승려를 발견했으며, 여러 나라에서 온 무역 상인들과 어울리고 있음을 전했다. 이징 스님은 이어 인도로 가는 학승(學僧)들은 한두 해쯤 스리비자야에 머무르며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까지 했다. 그는 12년에 걸친 당나라와 인도 간의 바닷길에서 만난 여행기를 통해서 인도와 스리비자야왕국 등 여러 나라의 불교 상황과 승려들의 생활상, 그리고 일반 서민들의 사회와 풍물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찬란한 해양불교 유산 '보로부두르'

스리비자야왕국의 발흥과 거의 같은 시대에 좁은 순다(Sunda) 해협을 사이에 두고 쟈바에서는 산자야(Sanjaya) 힌두왕국과 사일렌드라(Sailendra) 불교왕국이 등장하였다.

같은 경쟁국가를 둔 수마트라의 스리비자야왕국과 쟈바의 사일렌드라왕국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인도네시아 군도의 불교문화는 이 때 교류의 중심 사상으로 본격적으로 만개한다. 사일렌드라왕국이 산자야왕국을 대신하여 스리비자야왕국의 새로운 식량 공급원이 되며 현존하는 세계 최대 불교유적인 보로부두르(Borobudur) 사원도 축조됐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9세기 초에 축조를 시작하여 825년경에 완공된 것으로 전해진다.

보로부두르는 '바라(bara)'와 '부두르(budur)' 등 두 단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졌다. 바라는 산스크리트어의 비하라(vihara)에서 차용하였는데, '사원이 있는 공간'을 뜻하는 비하라(bihara 또는 Wihara)로 쓰이고 있다. 부두르는 발리(Bali)어의 브두후르(beduhur)에서 차용하여 부두르로 변형되었으며, '위 쪽'이라는 뜻이다. 보로부두르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위쪽의 절' 또는 '윗동네의 절'이 된다.

화산 폭발로 타격입은 해양불교문화

산자야 힌두왕국과 결혼동맹으로 쟈바의 주도권이 산쟈야왕국으로 넘어 가면서 보로부두르 사원은 점차 관심에서 멀어졌다.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는 1006년에 일어났다.

인근 머라삐(Merapi) 화산의 대폭발로 두 쟈바 왕국의 터전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보로부두르 사원도 이 때 화산재에 묻히게 됐다. 800년 넘게 흙더미에 묻혀 있던 보로부두르 사원이 적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토마스 스탐포드 래플즈(Thomas Stamford Raffles) 덕분이었다. 네덜란드의 식민통치를 받던 인도네시아 군도가 유럽 정세의 변화로 잠시 영국의 통치(1811-1816) 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 때 영국 총독으로 바타비아(쟈카르타)에 등장한 인물이 래플즈였다.

말레이어에 통달하고 말레이 문화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었던 그는 쟈바의 각종 고문서와 자료를 통해서 보로부두르 사원의 존재를 확신하고, 1814년 탐사에 착수하여 수개월 만에 발굴해 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하지만 보로부두르 사원은 다시 네덜란드의 수중에 놓이면서 고초를 겪었다. 여러 차례 대륙부 동남아로 진출을 시도했던 네덜란드는 다수의 보로부두르 불상의 두상 부분을 절취하여 태국 왕에게 진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총 504기의 부처님이 모셔진 보로부두르 사원의 불상 중 약 35%는 두상 부분이 없다.

보로부두르 사원에는 총 2,500면의 부조(浮彫)가 있다. 이 부조에는 항해 중인 대형 선박들이 많이 나온다. 사일렌드라 왕조시대에 이미 인도네시아 군도는 해상 실크로드와 연결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현재 동남아 해양불교 위치는?

그렇다면 현재 동남아 해양부 불교문화의 현주소는 어떨까. 먼저 주요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살펴보자. 인도네시아는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대 인구대국으로 전체 인구 2억 7000만 명(2019년)의 87%가 무슬림인 세계 최대의 이슬람국가이다.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라는 등식이 적용되어 모든 국민은 국가가 보장하는 종교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국가 종교로 이슬람 이외에 힌두교와 불교,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나아가서 유교까지 보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전체 국민의 0.8%인 170만 명이 불교도다. 그러나 잠재적인 불교도는 이 수치 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006년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에서 태국 다음으로 전체 인구 대비 중국계 국민이 많다. 2019년 인구통계로 전체인구 3260만 명 중 23%인 760만 명이 중국계이다. 이 나라는 믈라유계가 69%로 가장 많고, 중국계 다음으로 인도계(7%) 순이다. 불교는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다음으로 큰 종교로 중국계 국민들이 주 대상이다. 불교 분포를 나타내는 다양한 수치가 있는데, 약 20%를 중심으로 적게는 19%, 많게는 22%로 나타나 있다.

중국계 국민들이 주요 신봉하는 이 나라의 불교는 중국의 도교와 원시 형태의 불교인 마하야나 불교가 혼합된 형태이다.

싱가포르의 종족 분포는 2019년 통계로 전체 인구 580만 명 중 중국인이 74.1 %, 말레이계 13.4%, 인도계 9.2%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여타의 소수 종족들은 유럽인과 중앙아시아인 등 3.3 %에 불과하다. 중국계가 대종을 이루듯이 같은 해 종교 분포도 중국계의 중심 종교인 불교가 33%로 으뜸이다. 190만 명이 불교도이다. 기독교가 19%, 이슬람이 14%, 도교나 중국 토속 신앙이 10%, 힌두교가 5% 순이다. 다종족국가를 상징하듯 기타 소수 종교(무신교 포함)가 18.5%나 된다.

싱가포르의 불교는 2500년 전에 전래된 것으로 믿어지는 석가모니 불교로부터 중국계 세계 이민들과 함께 들어온 전 세계의 다양한 현대 불교까지 혼재하고 있다. 또한 이 나라에는 수많은 불교종단과 불교재단이 있다.

동남아의 강소국이자 절대왕권의 이슬람왕국인 브루나이의 국토면적은 5270평방킬로미터로 제주도의 세 배쯤 된다. 인구는 45만 명(2020년 추계)이며 국민 평균 연령은 30세이다. 국제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2019년 브루나이 국민의 75%는 이슬람을, 기독교 9%, 불교 8%, 토착종교 6%라는 통계자료를 내놓고 있다. 중국계가 15%인 이 나라의 불교도는 14%에 육박한다는 자료도 있다.

필리핀의 초기 불교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다. 그러나 역사자료의 편린으로부터 필리핀군도에도 9세기경 불교가 전래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마트라에서 쟈바와 보르네오, 술라웨시를 거쳐 필리핀 군도를 연결하고 있는 대순다열도의 일원인 필리핀도 6세기부터 13세기까지 순다열도 전역을 폭넓게 관장하고 있던 스리비자야 왕국의 영향권이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2010년 인구센서스에서 필리핀의 불교도는 당시 인구 9200만의 0.05%인 46,558명으로 조사되었다. 2%에 달한다는 자료(Wikipedia)도 있다.

이러한 동남아에서 생활종교를 지향하는 불교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교세가 신장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양승윤 명예교수는… 한국에서 동남아학의 초석을 쌓았다. 한국외대 말레이-인도네이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92년 경남대와 2002년 인도네시아 가쟈마다대에서 각각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표저서로는 〈인도네시아史〉〈한국의 문화와 정치〉가 있고, 1998년부터 14년에 걸쳐 총 15권의 동남아학 총서를 펴낸 바 있다. 에세이로는 〈작은 며느리의 나라〉를 출간하기도 했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 현불 논단 |

금빛 장엄 부처님만 보는가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부처님의 호칭 중 '구세대비존'은
번뇌 벗게 할 '자비의 스승' 의미

깨달음, 중생 · 세상구제 전제하지만
한국불교는 깨달음에 매몰된 상황
왜 부처님이 돼야 하는지를 망각해

법당 안 금빛 장엄 부처님 보다가
정작 이웃의 아픔 놓치지 않았을까
새해, 중생의 삶 속에서 치열해지자

구세대비자(救世大悲者) 혹은 구세대비존(救世大悲尊)이란 부처님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하나이다. 부처님에게는 많은 호칭이 있지만, 대개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연기(緣起)의 이법(理法)을 깨닫고 실천하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는 세상의 중생들에게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신 자비의 스승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호칭들이다.

호칭 면에서 보면, 최근의 한국불교는 대체로 전자의 방향, 곧 깨달음에 초점을 둔 불교의 성격이 훨씬 더 강렬했다고 생각한다. 깨달음에 대한 지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깨달음 일변도로 강조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는다. 깨달음은 중생구제, 세상구제의 전제이지만, 깨달음만 성취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결실을 얻지 못하는 그저 헛된 소망에 그칠 뿐이다.

유마거사가 물었다. "무엇이 여래를 낳게 하는 씨앗(種)입니까?"

문수보살이 답했다. "이 몸이 여래의 씨앗이며, 무명과 생존하고픈 욕망이 씨앗이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씨앗이며, 네 가지 전도(顚倒)와 다섯 가지 번뇌가 씨앗이 되며, 6입(六入)이 씨앗이 되며, 일곱 가지 식처(識處)가 씨앗이 되며, 여덟 가지 그릇된 가르침이 씨앗이 되며, 아홉 가지 고뇌가 씨앗이 되며, 십불선도(十不善道)가 모두 씨앗이며, 요점을 취해서 말한다면 62견(見)이나 모든 번뇌가 모두 부처의 씨앗입니다."

문수보살의 답변 요지는 명료하다. 중생이 받는 모든 고통의 씨앗 때문에 부처가 있다! 중생이 받는 고통의 씨앗이 없으면 부처도 없다! 바꾸어 말하면, 부처는 중생 때문에 세상에 출현한다는 의미이다.

깨달음도 좋긴 하지만, 왜 깨달음이며, 왜 깨달음이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 언제부터인가 한국불교에는 깨달음 지상주의가 횡행한다. 그 깨달음 지상주의의 어디에도 '왜 깨달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없으며, 그저 '깨닫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라는 깨달음 만능주의가 대세를 이룬다.

왜 출가수행자가 되고, 왜 불교를 공부하는 자가 되며, 왜 불교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었는지를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부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자(佛子)라면, 부처님이 왜 부처님이 되고자 했는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혹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혹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부처 되면 만사형통'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허공에 씨앗을 뿌려 밭을 간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민생(民生)을 걱정한다는 수많은 정치인에게 묻고 싶다. 민생이 정치를 낳는 것인지, 정치가 민생을 낳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수행에 몰두하는 많은 스님들께도 여쭙고 싶다. 지친 중생을 버무려 안고 돌보는 것인 수행인지, 깨달음만 추구하는 것이 수행인지. 마찬가지로 우리 불자들과 필자 스스로에게도 묻고 싶다. 금빛으로 장엄한 부처님만 보느라, 부처님이 결코 놓지 않았던 중생의 아픔은 정작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경자년 새해에는, 깨달음은 멀리 제쳐 두고, 너도 나도 다함께 중생의 괴로움 속에 치열해지는 나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부처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社 說

남북교류 신호탄, 불교 역할 기대

북미대화가 단절된 채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북미 간 대화의 문은 닫지 않았다"고 평가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낙관적으로 바라볼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최근 한국불교계와 북한불교계가 주고받은 새해 서신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분명 북한은 외부와의 대화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은 지난 1일 조계종과 천태종에 각각 새해를 축하하는 서신을 보냈다. 조불련은 서신에서 법우들의 법체건강과 불은 충만을 기원했다. 지난해와 2년 전만 해도 '우리 민족' '용맹정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불교도들의 연대'라는 표현을 쓴 조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이 새롭게 꺼내든 대북교류 카드는 단연 눈에 띈다. 그동안 한국불교계가 먼저 사업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북측의 답변을 오매불망 기다렸다면, 이번에는 북측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북한사찰 문화재를 교류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조계종의 카드 '평양 법운암 칠성각 치성광여래도'는 조계종이 2018년 1월 일본 경매에서 환수한 북한사찰 문화재다. 어떤 연유로 칠성도가 일본까지 흘러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35년 여러 보살의 시주로 화승 예운당 상규 스님이 그린 걸작이다. 특히 현재까지 알려진 예운 스님의 마지막 작품인 '표충사 삼세불회도'보다 5년 뒤에 조성된 것으로 가치가 높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으로 북한불교계와 교류해온 조계종이 북한사찰 문화재를 활용해 단절된 남북교류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길 기대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기도회를 봉행한다는 소식이다. 첫 기도회는 1월 1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렸다. 스님들은 격주 목요일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를 연다고 한다.

차별금지법은 인종, 종교, 성적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12월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제18,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보수 개신교계의 집요할 정도의 집단 협박과 항의에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서 법안을 철회했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보수 개신교의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선 대선에서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쏙 빼버리고 대신 보수 개신교계 인사를 만났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제시한 질문에서도 유보 입장을 보였다.

김지혜 강릉원주대 교수는 저서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조차 차별적 질서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차별은 고착되고 구조의 일부가 된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차별은 지워지거나 공정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기실 한국사회의 차별 감수성은 지난 10년간 높아질 만큼 높아졌다. 적어도 관념적으로는 평등을 지향한다. 하지만, 정말 세상이 평등할 수 있을까. 아니 평등하다고 생각하는가.

노예제 시대에 노예는 시민이 가져야 할 당연한 재산이었고,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던 시대에는 여성은 투표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사회적 상식이었다. 시야를 확장해 차별을 발견하고 논쟁해야 진정한 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은 평등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승낙해도 거절해도 방망이 50방

지금은 동안거 중후반에 접어들었다. 화두에 몰입하며 용맹정진하는 선방 스님들을 생각하고 있으니, 지난 하안거 때 나에게 큰 화두를 던져준 환자분이 떠오른다.

지난 여름이었다. 호스피스병동 간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한 환자분 보호자가 나와 면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좋다고 승락하자 잠시 후 지하 2층 불교법당으로 키가 작은 60대 후반 여자 분이 들어왔다. 그리고 던진 첫 마디가 "저는 불교가 정말 싫습니다"였다.

"저희 남편이 천도재를 지내고 싶어 하는데 그걸 좀 물으러 왔습니다. 게다가 죽은 후에는 꼭 절에 있는 납골당에 모셔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댁이고 친정이고 모두 개신교 신자죠. 그래서 식구들은 펄펄 뛰고 절대 안 된다며 난리입니다." 여인은 법당 부처님을 이따끔씩 흘깃 쳐다보기를 반복하며 "저는 이제 불교도 싫고 기독교도 싫습니다"라고 울먹였다. 그리고 그간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남편은 신학대까지 나온 개신교 신자인데 7년 전 하던 사업이 기울자 갑자기 불교로 개종을 했단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되돌아오겠지 생각했는데 자신의 기대와 달리 남편은 신심 견고한 불교도로서, 임종을 앞



그림 · 최주현

둔 상황이 됐다.

말을 들으니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천도재를 하라 해도 50방이요, 하지 말라 해도 50방, 사찰서 운영하는 납골당에 모시라 해도 50방이요, 모시지 말라 해도 50방인 것이다.

호스피스병동을 찾아 환자를 직접 만났다. 그의 아내가 설명하자 환자는 승려인 나를 보고 반기는 빛이 역력했다. 하지만 환자는 이미 말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노트에 간신히 글자를 써서 의사표현 할 수 있는 정도였다. "천도재를 지내고 싶다 하셨다고요?"하고 큰 소리로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다. "천도재 지내주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재차 물으니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사력을 다해 종이에 "사고난 사람"이라고 써보였다. 환자의 다급한 마음이 느껴졌다. 환자는 지쳤는지 한참 숨을 고르더니, 다시 "부모님"이라는 단어를 썼다. 부모님에게 이승에서 마지막 효도를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다.

이에 나는 "거사님 요즘 시기가 백중 천도 중인데요. 우리 법당에 위패 써서 백중 천도재 지내 드리면 어떨까요"하고 물으니 환자가 고개를 끄떡이며 좋다는 신호를 보냈다. '사고난 사람 영가'와 '부모님'의 위패를 휴대폰에 사진으로 담아 보여주니 만족한 표정이다. 다행이었다. 한 방망이는 피한 것 같았다. 납골당 관련 나머지 한 방망이를 해결키 위해 다시 병실을 찾으니 환자는 이미 의식을 놓은 상태였다. 후일에 들으니 가족회의서 일반 사설 납골당에 모시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환자는 곧 임종했고 '사고난 사람 영가 위패'와 '부모님 위패' 옆에 나란히 모셔 백중 천도재를 맞이했다. 나는 과연 두 개의 방망이를 지혜롭게 잘 피하고 병원법당 포교의 과업을 무사히 잘 마친 것일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빛나는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威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수리기능 8826호 양학모,양희곤 父子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락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 6 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김선희 불화작가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佛畫속 구법여행 선재 화가

영화 속 고고학자 보고 꿈을 키워
꿈 실현 위해 동대 고미술과 진학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불화 그려

첫 개인전서 현대적 불화 선보여
문인화 · 서예 · 전각 불화에 녹여
아크릴 등 재료도 과감히 시도해

일찍부터 해외에 우리 불화 알려
수월관음도에 선재 대신 쥐 그려
세화와 불화의 새로운 접목 시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법을 찾아 나선 선재는 28번째로 만난 관세음보살로부터 보살의 대비행문 설법을 듣는다. 선재는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바라보고 관세음보살은 따뜻한 시선으로 선재를 굽어본다. 보살과 선재 사이로 달빛의 물이 흐르고, 버들가지와 정병을 들고 있는 보살의 발밑에는 연화좌와 연꽃들이 보인다. 〈화엄경〉에서 전하는 그날의 모습은 한 편의 그림으로 옮겨진다. 고려불화를 대표하는 수월관음도가 그것이다. 2020년 새해 벽두에 선을 보인 한 점의 수월관음보살도에는 선재동자가 그려져 있어야 할 자리에 쥐 한 마리가 그려져 있다. 경자년을 상징하는 쥐가 보살을 향해 눈을 반짝이고 있다. 행복한 경자년을 기원하는 한 편의 세화다. 아울러 관세음보살의 설법이 그려진 불화다. 세화가 된 그 불화는, 아니 불화가 된 그 세화는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선을 보였던 김선희의 '수월관음보살도'다. 김 작가는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갤러리 한옥에서 초대전 '연년여의'를 개최했다. 김 작가는 전시에서 12년 동안 그려온 세화와 새롭게 그린 근작 불화를 함께 선보였다. 새로운 시도였다. 새로운 불화를 선보인 전시는 또 한 번 우리 불화의 길을 넓혔다.

인디아나 존스 꿈꾸던 소녀

영화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 :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1981년)'에서 고고학자 인디아나 존스(해리슨 포드)를 본 한 소녀는 꿈을 품기 시작한다. 영화 속 '고고학자'는 소녀의 눈에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꿈을 잃지 않았던 소녀는 동국대학교 고미술과(현재 불교미술과)에 입학한다. 그 소녀의 이름은 김선희다.

김 작가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늘 미술부에서 살았고 각종 미술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도 했던 미술학도였다.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미술은 김 작가의 소녀 시절 꿈 중 하나였다. 미술을 좋아했던 소녀는 어느 날 영화 속에서 고고학자를 만났고, 인디아나 존스를 꿈꾸며 고미술과에 입학했다. 소녀가 진학한 고미술과에는 인디아나 존스 대신 '불화'라는 세계가 있었다. 고미술과의 '고미술'은 우리의 미술이었고, 우리의 미술은 다름 아닌 불교미술이었다.

김 작가는 또 한 번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 영화 속 인디아나 존스가 이집트와 티베트 등을 누비며 오래된 이야기들을 찾아 나섰다면 김 작가는 우리 선대가 남긴 우리 불화 속에서 오래 된 이야기들을 찾아 나섰다. '불화', 그것은 미술과 고고학자를 가슴에 품었던 소녀의 완성된 꿈의 제목이었다.

새로운 모색

불화는 경전의 내용을 도상화한 또 다른 경전이다. 앞서 말한 수월관음도만 봐도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불화를 여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 있어야 한다. 불화를 그리는 붓에는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했다.

"법당에 모셔야 하는 예배화는 물론 일상 속에서 감상하기 위한 예술작품으로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우리 땅에 처음 들어온 후 각 시대마다 그 시대가 추구하는 불화를 남겼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불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도상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전통이 되고 훗날 '한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작가는 경전이 전하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새로운, 이 시대가 원하는 불화를 그리고 싶었다. 새로움은 옛 것에 있었다. 옛날을 알지 못하면 새로움은 없었다. 김 작가는 선재가 선지식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선대가 남긴 그림을 길로 삼았다. 김 작가의 박사학위 취득 당시의 논문인 '돈황 막고굴과 한국화엄경변상도의 비교 연구'는 그 길 위에서 나왔다. 김 작가는 새로운 모색과 함께 선대가 남긴 지난날에서 위대함을 찾고 경전 속의 부처님 가르침에서 그 답을 찾아갔다.

또한 김 작가는 최고의 스승을 찾아 문인화와 서예, 전각 등을 공부해 불화에 녹였다. 재료도 전통적인 분채나 석채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아크릴물감도 사용하고 유럽의 재료와 석채를 섞기도 하는 등 쉼 없이 새로운 시도를 모색했다.

첫 개인전 '화엄 禪 세계'

2013년 김 작가는 첫 개인전 '화엄 禪 세계'을 연다. 다양한 모습의 수월관음도, 지장보살도, 空 시리즈, 평상심시도 등 화엄과 선의 세계를 담은 불교회화, 수묵화, 전각 등을 선보였다.

"지극히 담백한 선화의 세계와 화려하고 찬란한 화엄불화의 세계는 서로 상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담담하게 그리거나 찬란하게 그리는 등 기법적인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그림세계라 할 수 있다."(동국대 문명대 교수)

"김 작가의 작품세계는 전통의 미를 살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현대적 미를 개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동국대 예술대 김창균 교수)

고려불화 7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수월관음도가 눈길을 끌었다. 김선희의 수월관음도는 '옛것에서 온 새로운 것',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불화였다. 옛 것이면서 오늘의 것이었다. 구법여행을 떠난 선재동자가 관세음보살을 만나 법을 구하는 모습은 법을 열망하고 새로운 불화를 열망하는 김 작가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새롭게 해석한 김선희의 수월관음도는 전통고려불화의 형식을 김 작가의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했다. 버들가지 대신 연꽃을 쓰고, 가부좌를 틀고, 화면 하단에 대나무와 기암괴석을 그리는 등 김 작가의 붓은 형식에서부터 자유로웠다.

선화로 표현되는 '空' 시리즈는 작가가 평소 모색했던 선의 세계를 가감 없이 표현했다. 자연의 상징으로 새를 그리고 새의 시선에 작가의 시선을 포갰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말이 없는 세계로 그렸다.

김 작가의 불화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기법적인 면에서 새로웠다. 또 다른 경전으로서의 의미에 충실했고, 답습이 아닌 창작으로서의 의미에도 충실했다. 김 작가는 전시에서 〈화엄경〉 입법계품에 근거한 관음보살도 도상과 같이 교리에 어긋남 없는 표현으로 관객의 마음을 끌었다. 수묵화에서는 단순한 감상만이 아니라 인간의 심성에서 느낀 우주의 이치를 새로운 그림으로 승화시켰다.

종교와 예술은 불가분의 관계다. 어려운 경전의 내용이나 교리를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좀 더 직접적이고 실감나게 전달하고 그로 인해 신심을 북돋는 역할을 예술이 하기 때문이다. 김 작가는 첫 개인전에서 종교의 예술적 승화를 잘 보여줬다.

2020 불화, 2020 김선희

30년 넘게 불화를 그려온 김 작가는 지금까지 네 번(일본 전시 포함)의 개인전을 열었다. 많지 않은 개인전이다. 하지만 그의 프로필은 남다르다. 전부 적어내기 힘들 정도다. 그는 수없이 많은 단체전에 참여했다. 그 중에는 해외 교류전이 수두룩하다. 김 작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불화의 한류를 꿈꿨다. 그는 일찍이 유럽과 미국 등으로 자신의 불화를 들고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상을 받고 관심을 받았다. 선지식을 찾아 나선 선재동자였다. 우리 불화의 답을 찾아 먼 길을 떠났던 불모 선재였다.

김선희의 불화는 네 번의 개인전을 치르면서 거듭 달라지고 새로워졌다. 화엄경변상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통과 현대라는 상이한 가치의 접점에서 삼세의 미묘한 경계를 하나로 아울렀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 열린 개인전에서는 세화와 불화의 경계를 허물며 또 다른 불화를 모색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새로운 불화로 연 김선희는 "이제 불화라는 것은 법당에서만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 갤러리 벽에도 걸리고 일상의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불화를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그녀가 걷는 길은, 그녀가 그리는 길은 어디로 향할까. 그의 붓끝이 궁금해진다.

김선희 화가는…



동국대 불교미술학과를 졸업했다. 동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입선한 후 국내외서 수차례 수상했다. 네 번의 개인전과 스웨덴 스톡홀름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 우수작가 초대전 등 수 차례 국내외 단체전에 참여했다. 2009년 금산사 벽화 모사복원에 참여하는 등 국내 전통사찰 불화복원 및 조성불사에 다수 참여했다. 그의 작품은 인도 뭄바이대학교, 인도 델리대학교, 창원문화재단 성산아트홀 등이 소장하고 있다. 현재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창원대학교 외래교수,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선희 화가의 주요작품

1. 수월관음보살도 30×45, 장지에 채색, 2020
2. 본래공(本來空), 32×42, 장지에 채색, 2020
3. 수월관음도(2017년 후쿠오카 복강한국미술전)
4. 과욕청심원, 10×25, 자연석 새김, 금, 분채


①


②


③


④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5~1/2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한마음선원
2	스스로행복하라:법정스님열반10주기특별판	법정스님	샘터	7	법정스님숨결	변택주	큰나무
3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8	안녕다람살라	청전스님	운주사
4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9	네가지거룩한진리와공	학산 이상규	해조음
5	요가 디피카	B.K.S.이헹가/현천스님	선요가	10	대승기신론해동소혈맥기(3)	원효/공파스님 역해	운주사

책세상

佛法, 인류가 지닌 마지막 寶庫

〈보고〉



분노와 논쟁 사회에 던지는 붓다의 말

빅쿠 보디 편역/전순환 옮김/불광 펴냄/1만 8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왜 인류는 그토록 평화를 원하면서도 항상 다투고 싸우며 역사를 피로 물들여왔을까?

2,500여 년 전 붓다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공동체의 갈등과 폭력, 분열을 일으킨 근본 원인을 인간 내면의 분노와 증오서 찾은 붓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Dhamma)'을 세우고, 자기 내면을 바로 보는 통찰력으로 분노를 없애는 수행법을 제시했다.

이 책은 초기경전 속에서 이런 붓다의 가르침만을 모아 엮은 것으로,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행복한 공동체의 시작, 정견(正見)' '공동체 속 개인의 언어와 행동에 관한 지침' '분쟁을 대하는 이상적인 태도' '지혜로운 논쟁법' 등,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고, 개인 간의 조화로운 화합을 위한 원칙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 간의 첨예한 갈등과 분노로 공멸 위기에 처한 현대사회에 더없는 영감과 혜안을 제시한다.

흔히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시키는 특성을 '이성'이라고 말한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고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하지만 인간 역사를 돌이켜보면 과연 이 말의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 합리적인 제도와 뛰어난 문명을 자랑하던 여러 사회가 분노와 증오로 한순간에 파괴돼 사라져 버린 역사적 사건이 많다. 이러한 폭력과 갈등, 분열의 조짐은 현시대에도 계속된다. 이 책은 반복되는 이러한 인류의 악업을 끊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붓다의 지혜를 모색한다.

붓다 생전의 인도 사회 역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붓다 자신도 침략 전쟁으로 일족이 멸망하는 비극을 겪을 만큼 참혹한 시대였다. 누구보다도 평화를 원했던 붓다는 비참한 결과만을 초래하는 분쟁을 없애는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다. 자신은 깨달음을 증득해 감정을 제어하고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타인을 그와 같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에 감명 받아 출가하거나 재가 신자가 된 이들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증오, 탐욕, 독선의 감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게다가 인도는 카스트라는 신분제도가 엄격했기 때문에, 붓다가 계급 차별은 없노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내에는 항상 분쟁의 조짐이 나타났다.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맹세한 제자들과 신자들이 늘어날수록 필연적으로 불교 교단은 분쟁에 쉽게 노출됐고, 분열해 사라져 버릴 위기도 여러 차례 겪을 수밖에 없었다. 붓다는 이를 막기 위해 철저하게 '조직을 우선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붓다가 오른 정신적 이상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불교 수행 공동체인 승가(僧伽)의 화합을 보장하기에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원활한 수행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세부적 규범을 확립하고, 분열 조짐을 차단할 일련의 규칙을 세웠다. 이것이 율장(律藏)의 탄생 배경이다.

이 규칙은 곧 수행 규칙이기도 했다. 이 책의 저자 빅쿠 보디(Bhikkhu Bodhi) 스님은 붓다가 제시한 많은 방법과 수행 이론을 단지 옛 시대의 유물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초기경전에 담긴 이 규범과 수행 방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한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신분과 극단에 치닫는 생각을 지닌 사람들, 그로 인해 벌어지는 다툼과 미움, 욕망에 기인한 분노가 항상 불교 교단을 위협했기에 붓다는 그 근원을 뿌리 뽑으려 했다.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과 분쟁의 원인도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서

갈등과 불화로 가득한 현대사회에
붓다가 던지는 단순 명쾌한 지혜들

분노와 소모적인 논쟁에 가려진 진리,
진정한 평화 위한 도덕률은 무엇인가

한 개인부터 군주까지 지켜야 할 덕목,
공정 공동체 위한 현실적인 가르침 10

비롯된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2,500여 년 전 붓다가 제시한 해결책을 가볍게 넘겨선 안 될 것이다. 붓다가 염원하고 꿈꾼 이상 사회는 아직 요원하다. 그러나 붓다의 해결책이 여전히 빛나고 있음은 어쩌면 인류가 가진 마지막 보고인지도 모른다.

이 책은 사회와 공동체 화합에 관한 붓다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책에 실린 내용은 모두 동남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상좌부 불교도들이 경전의 본체로 여기는 빨리어 대장경서 가져왔다. 빨리어 대장경이 상좌부 불교의 공인된 경집(經集)이지만, 이 모음집에 실린 내용들이 특정 불교 학파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불교 최초기에 형성된 담화 모음집서 유래한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종교적 믿음이나 체계와 결부돼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 본성에 관한 명확성, 타당성, 깊은 이해력의 측면서 이 가르침들은 종교와 상관없는 보편적인 내용임을 인지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사람들 간의 우호적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보편적 메시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갈등의 근본 원인을 자각하는 방법과 논쟁을 해결하고 화합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모음집은 각 장을 해설로 시작하는데, 이는 해당 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데 묶어주고, 주제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1장은 정견(正見), '바른 견해'에 관한 내용이다. 붓다는 정견을 성스러운 8정도의 첫 번째로 꼽으며,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삶의 지침임을 강조했다. 개인의 윤리적 행동이 공동체 화합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때, 바른 견해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함을 낱낱이 밝힌다. 2장에서는 '자애심을 키우는 수행'이라는 주제로 바른 견해가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초기불교에서는 개인의 변화를 사회변화의 열쇠로 본다. 공동체의 화합을 고취시키기 위한 시작이 '개인의 변화'에 있음을 강조하며, 그 실천법을 소개한다.

3장은 '분노 다스리기'. 사회적 화합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분노이다. 분노는 적의가 자라나는 씨앗이기 때문에 붓다는 수행 과정에서 분노를 통제하고 제거하는 데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분노가 발생하는 근원, 분노에 굴복하는 데 따르는 단점과 위험, 분노를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담았다. 4장은 '말'에 중점을 두었다. 붓다가 8정도에 '올바른 말(正語)'을 항목으로 포함했을 만큼 말은 조화로운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간 행동의 한 형태이다. 여기에는 올바른 말뿐만 아니라 토론에 참여하는 적절한 방법, 다른 이들을 칭찬하고 비판할 시점, 소모적인 논쟁을 다스리는 법, 논쟁서 그릇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교정시키는 방법 등을 다룬다.

또한 7장은 '의도적 공동체'를 세우는 원칙을 자세하게 다룬다. 붓다는 때때로 세속의 지도자들로부터 사회 전반의 화합을 유지하기 위한 조언을 부탁받았고, 그들에게 발전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하는 지침을 나눠 주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없애기 위해 붓다는 '상호 친절' '선한 행동' '이득의 공유' 등의 처방전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10장은 승가 공동체에서 더 큰 사회적 범위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여러 지침을 다룬다. 핵심은 '공정사회' 수립에 있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관계들을 탐구하는 붓다의 말을 소개한다. 즉 가정생활, 즉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 등 가정의 평화로운 유지에 관한 붓다의 가르침이다.

▲저자 빅쿠 보디는?

1944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서 태어난 유대계 승려이다. 브루클린대에서 철학과를 졸업하고, 클레어몬트대학원서 철학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 공부를 마친 후 스리랑카로 건너가 유명한 학승 발랑고다 아난다 마이트레야 스님을 은사로 1973년 비구계를 받고 정식 승려가 됐다. 2002년 미국으로 귀국 후 작가와 번역가로 활동하며 많은 불교 서적을 펴냈다. 또한 2008년 가난과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지원하는 '불교도 지구촌 구제회'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현재 뉴욕 카멜에 있는 장엄사(莊嚴寺)서 머무르며 불법을 펼치고 있다.

꿈 소재로 한 진실한 가르침 '술몽쇄언'



불교에 빠진 조선 유학자의 특별한 꿈 이야기

김대현 지음/역자 박성덕/북트리 펴냄/1만 2천원

이 책은 조선 유학자 김대현이 〈능엄경〉을 읽고서 쓰게 된 '술몽쇄언'이라는 글의 해석본이다. 꿈의 성질과 사바세계의 속성이 동일함을 예리하게 짚어낸 술몽쇄언에 대해 알아보자.

불교에 빠진 조선 시대 유학자

저자인 김대현은 조선시대 뛰어난 유학자였으나 〈능엄경〉을 읽고 그의 사상에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불교에서 찾은 것이다. 저자는 잠을 자면서 꾸는 꿈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 세계임을 꿈을 비유로 들면서 담담하게 풀어나간다. 그는 이러한 꿈 이야기를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였는데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듯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자는 서문에서 말한다.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진리에 다름 아닌 그의 꿈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허무맹랑한 말로 취급되었다.

사바세계에 희미하게 비춰지는 등불

술몽쇄언서 저자의 꿈의 논리에 의해 조선 시대 사람이 좋아했던 몽점(夢占)은 물론, 꿈 해몽과 최면술 등 꿈과 관련된 현대인의 헛된 관념들까지도 모두 부정된다. 이처럼 인간의 꿈에 대한, 더 나아가 꿈과 동일한 현실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들이 결코 바르지 못하다고 저자는 비판하고, 불교의 입장에서 수면 속 꿈과 인간의 삶에 대해 믿기지 않을 진실을 스스럼없이 밝히면서 불교 공부와 수행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꿈과 같고, 물거품 같으며, 신기루 같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허망함이 소멸된 진실한 경지인 '피안(彼岸)의 언덕'으로 가야 한다고 술몽쇄언은 강조한다. 문명이 첨단을 달리고 인간복제, 가상현실과 같은 장애마저 더해져 더욱더 어두워져 가는 첩첩 산중에서 술몽쇄언은 희미하게나마 비춰지는 등불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다.

김주일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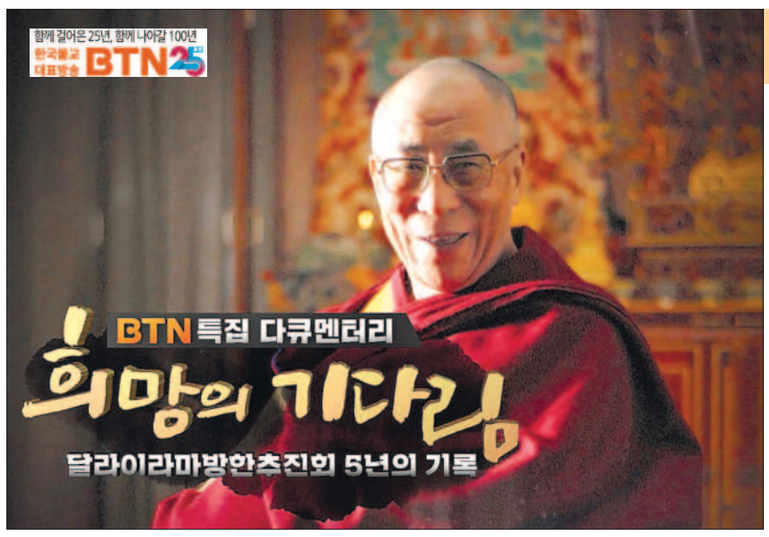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불교 명품 다큐, 설 연휴 안방 찾는다



BTN 특집 다큐멘터리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회 5년의 기록– 희망의 기다림'.

설 연휴 특집방송 BTN / BBS

BTN

설 연휴 특집프로그램

다큐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회 5년의 기록– 희망의 기다림'

1월 25일 오후 11시

BBS

설 연휴 특집프로그램

지구촌공생회 활동상 다룬 다큐 '캄보디아에 핀 자비의 꽃'

1월 24일(10:10, 22:00), 26일(14:40), 27일(07:10)



지구촌공생회 활동상 다룬 다큐 '캄보디아에 핀 자비의 꽃'.

BTN은 설 연휴 특집프로그램으로 1월 25일 오후 11시에 BTN 특집 다큐멘터리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회 5년의 기록- 희망의 기다림(이하 희망의 기다림)' 을 방영한다.

희망의 기다림은 2013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국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달라이라마의 한국 방문을 간절히 염원하며, 특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의 5년을 오롯이 영상으로 소개한다.

세계적인 '생명, 평화 자비' 의 상징인 달라이라마 존자의 한국 방문을 위한 16만 명의 방한지지서명을 받은 달라이라마 방한추진회의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활동과 달라이라마에게 초청장을 전하기 위해 떠난 인도 다람살라 일본 등의 여정들, 추진회 주요 스님들의 인터뷰를 생생하게 담았다. 또한 추진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만 5년의 과정으로 끝이 났지만 여전히 각자의 마음속에 달라이라마의 방한에 대한 염원을 두고 회향한 추진회의 희망의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전한다.

이 밖에도 탈종교 천만시대, 전법포교가 점점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시대, 세상 사람들과 더 가깝게 그리고 쉽게 일찍이 문화를 통해 현대인들과 소통하고자 대원을 세운 주석 스님의 살아있는 문화포교 현장 다큐멘터리 △꿈꾸는 수행자-불교, 시대에 눈을 뜨다(1월 24일 15:00 · 월 25일 19:00). 40년이 넘는 세월,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며 부처님 법을 실천해온 석왕사의 동짓날 풍경을 담은 다큐멘터리 △나눔도량 부천 석왕사의 '희망 가득 팥죽 한 그릇' (1월 24일 19:30 · 1월 26일 11:30) 그리고 △봄을 기다리며- 신계사 복원 그 후(1월 24일 23:00) △제51회 휴스턴영화제 대상 수상작-다비 1,2부(1월 26일 23:00 · 1월 26일 23:00) △광우 스님의 소나무 스페셜(1월 25일 22:00 · 1월 26일 22:00) △정목 스님의 나무아래 앉아서 스페셜(1월 26일 16:00~18:00) 등이 설 연휴에 시청자를 찾아간다.

BBS불교방송은 설 연휴 특집프로그램으로 '캄보디아에 핀 자비의 꽃(제작 PD · 홍진호)' 을 방영한다. 방영일은 1월 24일(10:10, 22:00), 26일(14:40), 27일(07:10)이다.

'캄보디아에 핀 자비의 꽃' 은 캄보디아 등 세계 곳곳에서 자비행을 펼치고 있는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지구촌공생회의 활약상을 소개한다.

지구촌공생회는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해 앙닐 법운화중고등학교와 사마키 영주초등학교의 준공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건립된 앙닐 법운화중고등학교는 지구촌공생회가 캄보디아에 건립한 두 번째 중고등학교로 오랜 후원자의 보시와 정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동참으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은 지난 2003년 지구촌공생회를 설립해 쉼 없이 국제구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사장 월주 스님과 거액을 보시해 학교 건립에 큰 힘을 보탠 후원자들, 그리고 지구촌공생회 직원들이 그동안 펼쳐온 활동과 성과를 조명한다. 또한 앙닐 법운화중고등학교와 사마키 영주초등학교의 준공을 맞아 배움에 목말라하는 캄보디아 아이들의 이야기도 전한다.

아울러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깨달음의 사회화' 등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과 2023년 설립 20주년의 비전 등을 소개한다.

너와 나 그리고 세상이 하나임을 깨달아 종교, 민족, 이념의 경계를 넘는 보편적 인류애를 실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2003년 월주 스님이 창립한 국제개발협력 NGO 지구촌공생회는 창립 후 지금까지 국가 · 민족 · 인종 · 종교를 뛰어넘어 캄보디아 등 18개 국가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지구촌 이웃들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국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사업을 펼쳐왔다. 박재완 기자

탑골미술관 '도약의 단초 5'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인작가 4인의 실험적 미술

탑골미술관(관장 유희)은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도약의 단초 5' 를 개최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도약의 단초' 는 복지와 미술의 접목으로, 탑골미술관의 신인 작가 지원프로젝트다.

탑골미술관은 2019년 9월 '도약의 단초 시즌 5' 의 공모를 진행했으며, 1차 심사를 통해 4인의 작가를 선발했다. '도약의 단초 5' 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강연수, 김소연, 정성진, 한보연이 참여하는 단체전으로, 4인의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생애 첫 개인전을 열게 된다.

4인의 작가들은 전통적인 형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기법으로 완성한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4인의 작가들은 서양화, 동양화, 조각, 설치미술이라는 각기 다른 방식과 소재로 작품을 선보이지만, 작품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관한 생각을 풀어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정성진 作, 재구축된 세계–다비드

강연수 작가는 누구에게나 있을 것만 같은 오래된 기억의 풍경을 아크릴 물감을 긁어내며 독특한 방식의 회화를 선보인다. 김소연 작가는 촘촘한 실과 다양한 재료를 접목해 시간의 흔적을 표현한 설치미술을 선보인다. 정성진 작가는 3D프린터기를 활용해 우리에게 익숙한 석고상을 재구성한 조각품으로 이상과 현실의 충돌을 재해석했다. 한보연 작가는 민화에서 영감을 받아 동물과 식물 등 자연을 형상화한 환상의 세계를 현대적인 색감의 동양화로 풀어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직접 관람객과 만나며 작품에 담은 생각과 참여하며 느낀 소감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작가와의 대화는 1월 20일 강연수 작가, 1월 22일 한보연 작가, 1월 29일 정성진 작가 순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탑골미술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고판화박물관 중국 국제년화전서 초청

중국 소주 1월 8일부터 10일까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의 세화 소장품이 제2회 중국 소주 국제 목판 년화전에 주빈으로 초청됐다.

중국 소주시와 중국 소주공예 미술학원(미술대학)이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주최하는 년화전이다. 고판화박물관은 소주 공예미술대학 특설 전시실에서 한국 세화판화 10여 점과 세계적인 명품으로 알려진 고판화박물관의 중국 세화 복록수 삼성도 등 2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맞아 열리는 행사로, 중국 목판 세화와 관련이 있는 한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의 고판화를 비롯해 중국 각 지역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명 세화와 중국 세화의 세계적인 소장처 중 하나인 한국의 고판화박물관의 중국 세화를 비롯해 한국 세화 판화가 소개되는 국제적인 행사다.


한선학 관장이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고판화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중국 전역에서 모인 세화박물관 관련가들에게 한국 세화의 우수성과 고판화박물관을 두루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9회째 치러지고 있는 고판화박물관의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 '원주 세계고판화문화제' 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시회와 학술대회, 전통판화시연회로 이루어져 있다.

세화 국제학술대회의 연사로 참여한 고판화박물관 한선학 관장은 "제 2회 중국 소주 국제 목판 년화 전시회를 통해 한국의 세화 문화가 이제 변방의 문화가 아니라 세계 속에 빛나는 우수한 문화임이 증명됐으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유물의 세계적인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행사였다"고 행사의 성과를 설명했다.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은 2003년 인쇄문화의 꽃인 동아시아 고판화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수집 · 연구 · 보존 · 교육하기 위해 개관했으며 한국, 중국, 일본, 티벳, 몽골, 베트남 등의 고판화 자료 6,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고인쇄 박물관이다. 박재완 기자



소리 성명학 최고위 과정
창업반모집
■ 이름으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 이름만 듣고 운명을 말해주면 신비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는 말소리에 따라 각기 다른 파장의 에너지가 발생 합니다.
우리의 말은 말을 하는 순간 파장을 타고 널리 퍼져나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같은 소리지만 어떤 소리는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소리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는 소리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어떤 에너지의 힘 때문입니다.
즉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판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과 같은 월리 입니다.
소리파장으로 부르는 이름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작명. 개명. 법명. 호. 회사이름. 상호. 각종번호. 집 주소. 핸드폰번호. 차량번호에 따라
소리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과 회사명을 개명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고 만족해합니다.
힘들 때 이름을 바꿔보세요.

부산 접수처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26-16번지 학마을 명상선원.
지하철 : 금련산역 3번출구 간사안내전화 : 010-5155-0918

천안 접수처 천안시 동남구 청수3길 37호 학마을 명상선원.
안내전화 : 010-8634-7851

에너지 파동 성명학회장 도윤 스님

달라이라마, 호주 산불 피해 위로

구호금도 전달 "인명피해와 자연파괴 깊은 애도"



지난 1월 6일 보드가야에서 법회를 봉행한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지난해 9월 발생한 호주 화재가 아직까지 진화되지 않는 가운데, 티베트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호주 정부에 공식적인 위로 메시지를 보냈다. 1월 9일 '티베트 썬', '아웃룩 인디아' 등의 외신들은 달라이라마의 메시지를 보도했다.

1월 8일, 스콧 모리슨 총리 앞으로 발송된 메시지에서 달라이라마는 총리와 호주국민에게 깊은 위로를 표명했다. 달라이라마는 가장 먼저 "모리슨 총리와 호주국민들에게, 아름다운 국토가 파괴된 것에 나의 깊은 슬픔과 연민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나운 화재가 수많은 야생동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자연이 파괴된 것에 비통한 마음"이라며 "전례 없는 화재로 가족들을 잃은 이들과 살 터전이 사라진 많은 이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슬픔을 표했다.

또한 달라이라마는 "수많은 자원봉사자, 소방대원들과 같이 개개인의 용기를 보이는 분들을 격려한다"며 화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칭찬했다.

달라이라마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국제적 단결은 하나 된 인류애와 자비로운 본성의 한 예가 될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가 지구온난화를 대응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면서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위로 메시지를 전한 달라이라마는 1월 2일부터 5일간 인도의 보드가야 법회를 봉행했으며, 법석에서 "이번 법회에 보시된 보시금의 일부를 호주 산불 피해를 위한 구호금으로 전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달라이라마는 지난 수년간 호주를 정기적으로 방문했으며, 가장 최근 방문은 2018년 6월이었다.

박영빈 객원기자

부처님 성도지에 불교연구소 출범

마하보디연구소, 1월부터 공식 학위과정 개강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성지 보드가야에 소재한 국제 불교연구소가 공식 학위과정을 시작했다. 지난 1월 11일 인도의 '캠퍼스 바르타'는 '마하보디 국제 팔리 불교연구소'에서 학위과정이 개강했다고 보도했다. 1차 수업은 2020년 1월 21일부터 시작하며, 국제 팔리 불교연구소에서의 과정은 인도 내외의 연구소 또는 대학으로부터 유효하게 인정받는 학위와 수료증이 부여된다.

인도 마하보디 협회에 소속된 이 연구소는 1891년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Anagarik Dharmapala)에 의해 설립됐다. 연구소는 팔리어와 불교철학에 대한 교육을 주요목적으로 삼고 있다. 설립자인 다르마팔라는 인도의 성지들을 부흥하고 특히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을 재건해 인도 현대불교의 부흥을 이끌어 낸 것으로 유명하다.

다르마팔라는 "인도의 출가자와 재가자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불교에 대한 식견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 불자들을 위해 설립된 당초의 모습에서 그 실력과 규모를 갖춘 연구소는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 3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 받으면서 본격적인 국제 불교학 연구소로 출범했다.

협회 총무국장인 왈리 테르(P.Sewali Ther)는 "깨달음의 땅인 보드가야에서 체계적인 불교를 교육하는 본격적인 활동이 연구소를 통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구소 측은 카일라스 프라사드(Kailash Prasad) 박사, 끼란 라마(Kiran Lama) 등 다른 지역의 불교학자들을 초청, 협력하며 산스크리트 전통의 불교학도 가르칠 예정이다.

마하보디협회는 "팔리어로 남은 삼장을 연구의 근간으로 삼을 것이며,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학위과정이 인정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이 증가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과 기대를 내비쳤다.

김민재 객원기자

태국 호신불 '프라쿠르안' 열풍

중년 남성들에게 인기… 영험담 점차 늘어나

박영빈 객원기자

전통적으로 많은 불교국가에는 소지자의 심신을 지켜준다는 호신불이나 호신부의 전통이 전해오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상좌부 불교국가인 태국에선 '프라쿠르안'이라는 호신불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어 화제다. 1월 9일, 일본의 '엑사이트 뉴스'는 태국의 호신불 열풍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프라쿠르안(Prakuran)'은 일반적으로 불상이나 불탑의 형상으로 조성된다. 개중에는 유명한 고승의 모습이나 태국 민간신앙에서 유래한 모양도 있다. 이들은 모두 태국 국내 각지의 사찰에서 만들어지며 스님들의 축원을 통해 완성된다. 보통은 목에 걸 수 있게 목걸이 형태로 나오지만, 개중에는 벽걸이 액자의 형태로 나오기도 한다.

중년 남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다는 프라쿠르안에 대해 '엑사이트 뉴스'는 "프라쿠르안에 대한 태국인들의 생각은 여타 불교국가에서 생각하는 호신불·호신부의 개념과 조금 다르다"고 전했다.

엑사이트 뉴스는 태국 현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태국인들은 프라쿠르안에 실제로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는다. 그

불상불탑 형태 대부분이지만
고승·민간신앙 유래도 있어
SNS로 대중 소문 퍼지면서
일부 호신불 수십억 원 호가

자체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강력한 위신력으로 보호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 태국에서는 프라쿠르안과 관련된 영험담이나 소문이 무성해 이를 모은 책이 따로 출판되기도 했다.



마하랏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프라쿠르안'들. **사진출처=엑사이트 뉴스**

인터뷰에 응한 한 태국인은 "프라쿠르안을 몸에 소지하고 있다가 사고를 피했다는 이야기가 가장 흔하다. 실제 몇 년 전 대형 교통사고의 생존자들이 전원 프라쿠르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그 인기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태국 내에서 프라쿠르안 시장은 매우 활성화된 상태다. 태국 내에서 가장 큰 시장은 방콕의 마하랏 시장. 전문 업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장품을 판매하려는 사람까지 국내외의 수집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전문 감정사도 등장하고 있다. 시대나 조성된 사찰, 조형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가치가 조명되고 있다. 특히 유명한 고승이 만들었거나 수백 년이 지나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는 것, 오래된 사원의 탑 등에서 나온 파편이나 고승의 사리나 유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엔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 그 경제적 가치는 태국 내에서 널리 인식돼, 부동산 등 고액의 거래에서 프라쿠르안이 담보로도 통용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열풍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존재한다. 한 불자는 "몸을 지켜준다고 하는 빠릿따(paritta, 수호경)에 대한 신앙이 민간신앙과 합쳐져 생겨난 현상"이라며 "지나친 열광은 불교 본연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른 불자는 "불상이나 덕이 높은 스님들의 모습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신심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그 자체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은 말 그대로 우상숭배다. 부처님은 우상숭배를 가르치지 않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주민의견 반영한 美 사찰 건립

산호세 에버그린 지구, 테라와다 불교 사찰

캄보디아 불교계 건립 추진
법당·공동회관 등 갖췄지만
일부 지역주민 반대 의견 내
공청회 열고 오해 해소 나서

미국 산호세에 사찰 건립을 위해 사찰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소통에 나서 화제다. 1월 10일, 미국의 '산호세 스포트라이트'는 산호세의 에버그린 지구의 불교사찰과 주민들이 함께 의견을 조율한 과정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15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모였다. 의제는 에버그린 지구에 새롭게 건립될 불교사찰에 관한 내용이었다. 두 시간 가량 이어진 대화는 마냥 밝지만은 않았다.

에버그린 지구의 루비가(街)에 건립될 왓 크메르 캄푸치아 크롬 사원(Wat Khmer Kampuchea Krom Temple)은 캄보디아 불교계가 건립할 테라와다 불교사찰이다. 사찰 측이 시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사찰은 법당과 공동회관, 식당, 8인의 스님들을 위한 숙소를 갖출 예정이다.

사찰 측은 "이 지역은 운전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을 포함한 300여 가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차량소음과 매연,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83대 규모의 주차장을 지하로 이전하는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용해 당초계획에서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사찰의 건립자이자 전무이사 인 리아람 씨는 "사찰은 넓은 공간과 정원을 가진 평화롭고 사색적인 장소가 될 것이다. 모든 계획은 주변 지역사회에 맞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의 대표 설계자와 건축사 역시 "사찰이 건립될 지역이 단독주택 구역이지만, 산호세시는 이러한 지역에 종교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활용방안으로 산호세시는 종교시설 같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공간을 지원한다"며 법적으로나 시 운영계획상에서 전혀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사찰 측이 준비한 30분간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인근 단체 '루비 놀우드 코어 그룹' 멤버들은 해당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대 측은 "예불과 특별 행사 동안에



산호세 에버그린 주민 150여명이 불교 사찰 건립 계획안을 듣고 있다. **사진출처=산호세 스포트라이트**

는 교회, 회당, 모스크와 유사하게 교통량이 증가하고 소음공해와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 대표인 쿠베키 씨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 없다. 결혼식과 장례식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를 원치 않으며, 갑작스럽게 변한 환경적 외관이 에버그린 지구 미래건설의 선례가 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사찰 건립 예정부지에는 5채의 버려진 단독 주택과 헛간이 있다. 현재 이 건물들의 높이는 10m밖에 되지 않는 반면, 사찰의 높이는 최고 20m까지 확장될 계획이다. 적절한 수행환경을 위해 기존에 식재된 나무들을 제거하는 등의 계획이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리아 람 전무이사는 테라와다 불교의 전통적인 결혼식과 장례식은 전통적으로 사찰이 아닌 불자의 집에서 봉행된다고 답변했다.

람씨는 "다양한 의견을 고맙게 생각한다. 많은 주민들이 불교문화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것에서 이견이 일어난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문화, 종교, 삶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람 씨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 주민들이 끝까지 싸우겠지만, 이번 대화를 통해 발전적인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낙관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대승기신론』과 『해동소』의 정수를 온전히 풀어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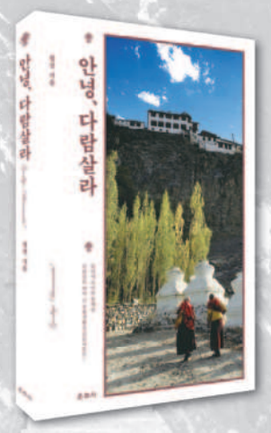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1~3

대승불교의 교과서 『대승기신론』과 그 주석서로 인도와 중국을 뒤흔든 원효의 『소별기』!

기존 해설서들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쉽고도 가슴에 쏙쏙 들어오는 해설!

공파 스님 역해/신국판 양장/각권 400여쪽/각권 20,000원

30년 동안 다람살라에 머물며, 스승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수행과 봉사의 삶을 살아온 청전스님이 풀어놓는 이야기들!



안녕,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를 직접 모시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화들!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고 티없이 맑은 노스님들의 이야기!

오로지 부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민중들의 소박하고 감동적인 모습들!

청전 지음/국판 무선/200쪽/값 1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삼세불회도' 용주사 창건 당시 조성됐다"

강관식 교수, 國博 학술지 〈미술자료〉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화성 용주사 대웅전 후불탱인 '삼세불회도(三世佛會圖)'는 서양화 기법이 활용돼 20세기 근대기 작품으로 추정돼 왔다. 하지만, "삼세불회도가 정조대에 김홍도 등이 조성했다"며 기존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관식 한성대 예술학부 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간하는 학술지 〈미술자료〉 제%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용주사 삼세불회도는 정조 측근에 포진하고 있던 김홍도 · 이명기 · 김득신 등 궁중화원과 상겸 같은 왕실 화승들이 공동으로 작업해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용주사는 정조가 부친 사도세자의 능인 현륭원(顯隆園)을 화성으로 옮긴 후, 1790년 조성된 능사(陵寺)다. 삼세여래체탱(三世如來體幀)으로도 불리는 이 탱화는 화가 등을 기록한 화기(畵記)가 없는 탓에 제작 시기를 두고 지난 50년간 논쟁이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형식과 도상이 19세기 후반 화승들이 그린 청룡사와 봉은사의 '삼세불회도'와 유사하고 서양화법이 도입돼 '19세기 조성설'이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강 교수는 논문에서 '삼세불회도' 중앙에 쓰인 '왕실 존위 축원문'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 본래 왕실 존위 축원문에는 '주상전하(정조), 왕비전하(효의왕후), 세자저하(후일 순조)'로 쓰여 있었으나 이를 지우고 왕비 앞에 '자궁저하(혜경궁 홍씨)'를 추가로 넣어 개서(改書)한 점을 강 교수는 주목했다.

화기 없어 제작시기 · 작가 논쟁
수미단 왕실 존위 축원문 분석
왕비보다 앞에 있는 '자궁저하'
혜경궁 위상 높던 정조代 가능
'삼세불회도' 1790년 그린 원본
김홍도 · 이명기 등 畵師로 참여

이에 대해 강 교수는 "현륭원의 재궁(齋宮)인 용주사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사도세자 아들인 정조와 부인인 혜경궁 홍씨임에도 불구하고 축원문에 혜경궁이 빠져있는 것을 보고 정조가 직접 지시해 개서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이 개서는 용주사가 준공된 뒤 정조가 현륭원으로 원행해 돌아보고 나오는 길에 용주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삼세불회도'를 친견했던 1790년 1월 17일에 이뤄졌을 것"이라고 봤다.


화성 용주사의 삼세불회도. 가로 350cm, 세로 420cm 크기로 서양식 명암법을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기가 없고 서양화법이 활용돼 제작시기와 작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돼 왔다.

이어 "'주상전하, 자궁저하, 왕비전하, 세자저하'라는 개서는 정조대의 특수한 전례를 따른 것"이라며 "'자궁저하'를 왕비의 앞에 놓는 개서된 축원문은 현존 '삼세불회도'가 1790년 창건 당시 그려진 원본 진작임을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교수는 구전돼 내려오는 작가에 대해서도 '팀 김홍도'를 주장했다. 그는 "현존 용주사 '삼세불회도'는 국왕 측인인 김홍보 · 이명기 · 김득신 · 상겸 스님 등 궁중화원 · 화승들이 공동작업해 조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조대에 발달했던 서양화법을 전면적으로 구사해 불화 역사상 유례없는 양식을 새롭게 창조했다"면서 "불화의 맥락이 아니라 궁중회화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20세기 초 서양화법 개채설이나 신작설이라는 상상의 허상에 빠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술자료〉 제%호에는 미술사 최신 연구 성과들을 담은 논문들이 수록됐다. 강건우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 학예연구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포천 출토 철조여래좌상에 대한 소고'를 통해 철조여래좌상이 9세기 후반에 조성된 약사여래상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성배경을 추정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실경산수화 특별전에 전시된 주요 작품에 대한 후속연구인 '16세기 실경산수화 이해의 확장: 〈경포대도〉, 〈총석정도〉를 중심으로', '1788년 김응환의 봉명사경과 〈해악전도첩〉', '과시된 효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인왕선영도〉' 등도 실렸다.

한편, 〈미술자료〉는 1960년 창간된 국내 최초의 미술사 전문 학술지로, 한국미술사가 미개척 분야였던 시기 관련 자료의 발굴이 잇따르자 국립박물관으로서 미술사학계의 발전과 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간됐다. 매년 6월 · 12월 발간되며 학술논문 외에도 박물관 소장품을 비롯한 새로운 자료 및 서평, 국제학술대회 참가보고 등을 게재한다.

〈미술자료〉의 모든 논문과 총 목차는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남한강 3대 폐사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국민운동본부 1월15일 창립
자료 발굴 · 순례길 걷기 등
폐사지 의미 조명사업 전개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법사지 등 고려시대 융성했던 남한강 유역 3대 폐사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본격 추진된다.

'남한강 유역 폐사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국민운동본부(이하 남사본)'는 1월 15일 원주시의회 시민모임방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등재 추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남사본 측은 감사 선출과 정관을 승인하고 연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남사본은 올해 남한강 일대 문화유적 자료 발굴과 학술 세미나, 토크콘서트 등 3대 폐사지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사업들을 추진한다.

또한 남한강 일대 마을 탐방과 순례길 걷기, 특산품 발굴 등을 통해 폐사지 일대 마을의 과거 생활상과 가치 등을 알릴 계획이다.



남한강 유역 폐사지 세계문화유산등재 국민운동본부는 1월 15일 원주시의회 시민모임방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원주시는 부론면 법천사지와 거돈사지, 지정면 흥법사지를 묶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법천사지와 거돈사지는 남한강 변에 있고, 사지 간 직선거리가 3km정도로 가깝다. 흥법사지는 남한강 북쪽 지류인 섬강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법천사지와 거돈사지는 역사 · 학술적 중요성이 인정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원주시는 남한강 3대 폐사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1년여 간 용역을 완료하고 문화재청에 세계문화유산 장점목록 등재 신청을 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9일 남한강 3대 폐사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하고 내달 중 잠정목록 선정을 위한 심의를 열 계획이다.

김상환 남사본 운영위원장은 "문화재청의 심의가 통과돼 잠정목록에 등재되면 남한강 3대 폐사지 세계유산 등재가 탄력받게 될 것"이라며 "민간단체로서 남한강 3대 폐사지에 대한 세계유산적 가치를 조명하는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전병선 · 김정희 · 이숙은 원주시의원, 박순조 국보 제101호 원주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환수추진위원회 상임대표, 박종수 원주시역사박물관장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한문불전 심화과정 수료생 첫 배출

동국대 한문아카데미, 1월 13일 제7기 수료식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한문아카데미에서는 1월 13일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본관동 227호에서 제7기 수료식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2년, 한문불전 역경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목표로 출범한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는 2014년 제1기 수료생(기본과정)을 배출한 이래 이번 수료하는 7기 수료생 11명을 비롯하여 총 40여 명의 수강생들이 수료했다.

2020년 수료식에서는 혜인 스님(심화과정), 명준 스님(심화과정), 정목 스님(기본과정), 자민 스님(기본과정), 혜신 스님(기본과정) 등 스님 5명과 김정만(심화과정), 윤미란(심화과정), 윤세형(심화과정), 정헌열(심화과정), 허웅(심화과정), 김관용(기본과정) 등 6명의 재가 학생이 수료했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신설된 심화과정에서 최초로 배출된 수료생이기도 하다.

심화과정 성적 최우수 장학에는 윤미란, 우수 장학에는 지안 스님, 명준 스님, 김기학, 장려 장학은 정성인 연수생이 수상했다.

기본과정 성적 최우수 장학에는 김관용, 우수 장학에는 허남결, 진성 스님, 효찬 스님, 현덕 스님, 혜신 스님이 선정됐다. 장려 장학에는 정목 스님, 법익 스님, 자민 스님, 승려 장학은 청목 스님이 수상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학연구회 봄 발표 논문 공모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오는 1월 31일까지 '2020년 봄 논문발표회' 발표논문 신청을 받는다.

3월 21일 오후 1시 열릴 예정인 봄 논문 발표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연구자들은 불교학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논문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마감 시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박사과정 이상 학위취득 5년 이내의 신진학자면 신청 가능하다. 발표자 선정 및 통지는 2월 7일 불교학연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발표원고는 2월 28일 마감한다.

불교학연구회는 "봄과 가을, 연간 2회에 걸쳐 신진 학자들의 발굴과 양성을 위해 논문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주제는 불교 관련 내용 중에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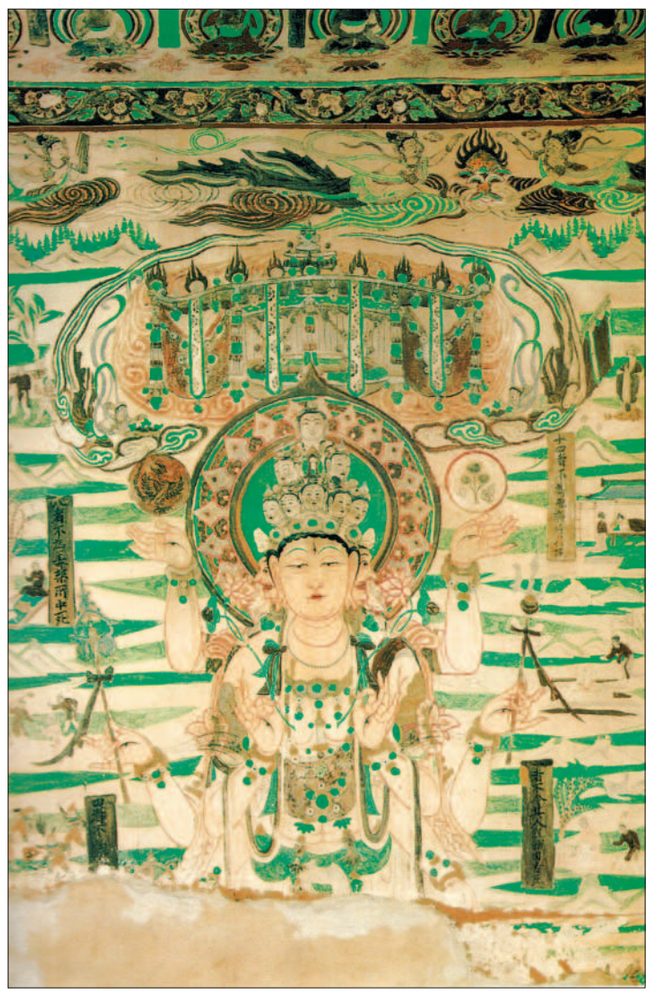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② 천수천안관음도

천 개의 손, 중생을 보듬다



중국 쓰촨성 와불구에 잇는 천수관음상부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천수관음이다.



송대에 조성된 돈황 막고굴 76굴의 '십일면팔비관음도'. 〈천수경〉을 바탕해 조성됐다.



고려불화 '천수관음도'의 모습이다. 아래 〈화엄경〉의 선재동자가 확인된다.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필자가 다치거나 아플 때 할머니께서는 '나무관세음보살'을 무한 반복하셨다. 할머니께 누구든지 곤경에 처했을 때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시어 도움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세음보살은 만화영화의 '로봇태권 브이'나 '마징가 제트' 비슷한 힘이 센 전지전능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종종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강원도 치악산의 작은 암자에 오르며 뜻 모를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를 따라하고, 일반적인 관세음보살보다는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을 갖추신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이 더 힘센 분이라며 천수관음을 더 좋아했었다.

유년기를 지나 대학원에 진학해 불교미술을 공부하면서, 뜻도 모르면서 〈천수경〉을 외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한국불교와 천수관음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천수관음은 불화와 불상으로도 많이 존재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관음의 지물이나 주변의 인물들이 달라서 의문점이 생긴다.

천수관음 도상의 기원에 관해서는 기존의 두 가지 설이 존재한다. 첫째, 인드라 신이나 비슈누, 쉬바 같은 힌두의 신들이 불교적으로 변용된 도상으로 굽타왕조 이후 당시의 힌두교도가 신봉하던 여러 신들이 대량으로 불교에 유입되면서 7세기 이후 밀교에서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둘째, 천수관음 관련 경전들이 대개 서역(西域) 즉,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성립된 것이므로 천수관음의 도상 역시 중앙아시아에서 성립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천수관음이 가장 성행했던 중국의 경우 쓰촨성(四川省) 청량산(淸涼山)의 천수관음이 가장 이른 사례로서 약 6세기 북주시대에 조성된 것이라 알려져 있고, 인도 승려 구다제파(瞿多提婆)가 당 무덕연간(武德年間, 618~626)에 그림과 경전을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물론 당시의 조각이나 그림이 남아있지 않아 형상을 짐작할 수는 없지만, 이상의 기록으로 볼 때 적어도 6~7세기 무렵에는 중국에 천수관음의 도상이 유입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이른 천수관음으로는 8세기 전반에서 중엽 경에 조성된 쓰촨성 와불구(臥佛溝)의 천수관음이 알려져 있다.

천수관음에 관해 언급한 경전은 △천안천비관세음보살다라니신주경(千眼千臂觀世音菩薩陀羅尼神呪經, 653년, 지통 譯)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 655년, 가범달마 譯) △천안천비관세음보살모다라니신경(千眼千臂觀世音菩薩姥陀羅尼身經, 709년, 보제유지 譯) △千手觀音造次第法儀軌(千手觀音造次第法儀軌, 8세기 전반, 선무외 譯) △金剛頂瑜伽千手千眼觀自在菩薩修行儀軌經(금강정유가천수천안관자재보살수행의궤경, 746~774, 불공 譯) △천안천비관세음보살대비심다라니경(千眼千臂觀世音菩薩大悲心陀羅尼經, 770년경, 불공 譯) △섭무애대비심다라니경(攝無礙大悲心陀羅尼經, 8세기 중반~8세기 후반, 불공 譯) △불설대승장엄보왕경(佛說大乘莊嚴寶王經, 천식재 譯)△천광안관자재보살비밀법경(千光眼觀自在菩薩秘密法經, 삼매소부라 譯) △능엄경(반자밀제 譯) 등 다양하다.

언급한 경전의 내용에 따르면 천수관음은 총 천 개의 손 중에서 8~46개의 대수(大手)를 지니며, 25~40개의 지물을 가지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연구는 천수관음의 신체적 특징 및 지물, 권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한국 역시 이와 같은 방향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현존 작품이 거의 없기 때문인지 관음의 한 종류인 변화관음으로서 관음연구의 작은 부분을 차지해 왔다.

기존에 천수관음에 관해서는 막연하게 밀교계 관음에 속한다고 언급되어 왔지만, 중앙아시아지역부터 한국에 현존하는 천수관음을 도상학 즉

천수관음 도상 힌두 · 중앙亞 기원
중국 쓰촨 와불구 천수관음 '最古'
천수경 등 천수관음 경전 다양해
韓 천수관음도상, 선재동자 확인
화엄경 입법계품에 근거해 조성

경전의 내용과 도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계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천수경〉을 도상학적 근거로 하는 천수관음이다. 〈천수경〉에는 다라니를 설하는 목적과 40수의 지물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기존의 연구에서 천수관음의 도상과 가장 밀접한 경전으로 언급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송대에 그려진 돈황 막고굴 76굴의 〈십일면팔비관음도(十一面八臂觀音圖)〉를 꼽을 수 있다. 물론 이 작품의 경우 천수가 모두 표현되거나 40수의 지물이 모두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화면 중앙 십일면팔비관음의 좌우로 〈천수경〉에 언급된 십오종악사(十五種惡死, 열 다섯 종류의 나쁜 죽음) 중에서 △굶주려서 죽지 않는다(不令其飢餓困苦死) △군대에서 서로 죽임과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不爲軍陣相殺死) △독약으로 죽지 않는다(不爲毒藥所中死) △몸에 나쁜 병이 들어 죽지 않는다(不爲惡病纏身死) △자신의 몸을 해쳐서 죽지 않는다(不爲非分自害死)의 장면과 방제가 남아있어 〈천수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8세기 전반에 한역된 〈천수관음조차제법의궤〉이다. 천수관음은 물론 밀적금강(密跡金剛)부터 마지막 28부의 권속까지 상세히 표현되어 있다. 천수관음을 중심으로 28부 권속이 모두 묘사된 대표적 사례로 9세기에 제작된 쓰촨성 단릉(丹稜) 전산(鄭山) 64호 천수관음부조가 있다.

셋째, 〈묘법연화경〉 권7 '관세음보살보문품'이다. 이 경전에서는 천수관음이 중생들이 겪는 고통 및 온갖 재난과 환난의 구원자로 대비심을 극대화한 존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앞서 언급한 쓰촨성 와불구의 천수관음상이 있는데, 이 작품의 경우 천수관음의 좌우에 천수관음이 내려주는 감로를 받는 아귀와 금전을 받는 가난한 노인인 궁수가 조각되어 있어, 중생들의 고통을 구원해 주는 천수관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화엄경〉 '입법계품'이다. 관음이 선재동자의 구법 여행에 등장하는 53선지식 중 스물여덟 번째 선지식으로 등장한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고려 14세기 〈천수관음도〉를 보면 선재동자가 바라보고 있는 관음이 천수관음으로 표현되어 있어 관음을 대신해서 천수관음이 넓게 신앙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연화사(蓮花寺) 〈천수관음도〉, 표충사 〈천수관음도〉 등이 있다.

다섯째, 밀교경전 태장계(胎藏界) 만다라(曼荼羅) 허공장원(虛空藏院)의 천수관음을 근원으로 하는 도상이다. 이 천수관음 도상의 경우 바수선(婆藪仙)과 공덕천(功德天)을 좌우 협시로 하고 있으며, 그 외의 다수의 권속들 역시 태장계 만다라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중국 신장성 위구르자치구 투르판 고창고성(高昌古城)에서 출토되어 현재 러시아 에르미따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천수관음도〉, 돈황 막고굴 148굴의 〈천수관음도〉(8세기), 돈황 유림굴 3굴의 〈천수관음도〉 등이 이 계열에 해당한다.

이처럼 천수관음은 다양한 지물과 여러 권속을 거느린 모습으로 표현되어 왔고, 지역적 · 시대적 특징을 잘 반영하여 중생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현존하는 유물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천수관음은 〈화엄경〉의 '입법계품'을 표현한 사례에 해당이 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중세 불교가 화엄사상이 고조되었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밀교의 도상이 적극적으로 유입되지 않았음에 있겠다.

오늘도 천수관음보살은 고통만큼 욕심도 많은 중생들의 바램을 해결해 주시려면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도 부족하지 않으실까 염려가 되면서, 여기에 개인적인 소망을 얹어 〈천수경〉의 첫 구절을 외우며 병중 아버지의 쾌유를 빈다.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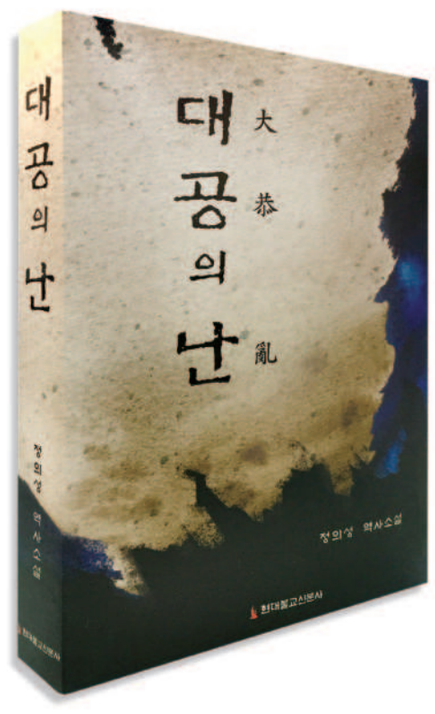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종교정당 설립기반 '포용성'



윤성식의
붓다의 정치학

② 종교와 정치의 분리



그림 · 박구원

독일의 여성 총리인 메르켈 총리는 독일 역사상 최장수 총리로 인기가 높다. 메르켈 총리는 어느 정당 소속일까? 기독교 민주당 소속이다. 더 정확하게는 기독교 민주연합 소속이다. 기독교 민주연합은 개신교와 카톨릭 세력이 참여하고 있지만 종교적 색채는 약하다.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정당임은 틀림없으며 노선은 중도보수이다. 진보 정당과 경쟁하고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 정책을 추구한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설립된 기독교 민주당 중 독일과 네덜란드의 기독교 민주당이 가장 성공했다.

올해 4월에는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총선이 치러진다. 기독교 정당은 한국에서도 과거에 시도되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번에는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최초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 정당의 성공적인 안착 가능성이 높다. 만약 기독교 정당이 몇 명이라도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정치에 참여한다면 불교도 이에 뒤질세라 정당을 결성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걸까?

경전은 출가자가 왕이나 국가에 접근하면 생길 수 있는 10가지 오해를 나열한다. 예를 들어 출가자가 왕을 만나거나 국사에 개입할 때 국가에 음모가 발생하면 출가자가 오해를 받는다. 대신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 대신이 평소 출가자가 가까웠다면 불교가 반역을 지원했다고 오해 받는다. 국가의 재보가 분실되었을 때도 출가자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불교의 입장에서는 이건 기분 나쁜 오해이다. 국왕의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했을 때 출가자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구절을 읽으면 출가자에 대한 모독으로 보인다. 국왕에게 무거운 병이 생겼을 때도 출가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당시의 종교는 치료의 역할도 했나보다. 국왕과 대신의 사이가 나빠졌을 때 출가자가 개입했다는 오해를 받고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도 출가자가 오해를 받는다. 자선을 잘하던 국왕이 출가자를 만나고 부터 인색해진다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는 속담처럼 꼼짝없이 오해를 받는다. 정법으로 백성의 재보를 취하던 국왕이 출가자를 만난 뒤로 비법으로 취한다면 마찬가지로 오해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었을 때 출가자를 오해한다면 이것 또한 억울한 일이지만 능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경전의 이러한 구절을 보면 출가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정치인과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독재정권이나 인권탄압에 대해서도 침묵해야할까? 부처님은 비록 출가자가 정치에 개입하면 오해를 초래한다고 경고하셨지만 이상적인 정치에 관하여 경전 곳곳에서 언급하셨다. 불교 교리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를 보고 아무리 출가자라 해도 오해가 두려워 침묵한다면 과연 부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실까? 출가자가 불교 정당을 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재가자의 경우는 어떨까?

이 세상 모든 현상은 연기적 현상이다. 종교와 정치도 사회적 현상으로 독자적 실체가 없이 서로 연기한다. 종교와 정치는 엄격하게 선을 긋기 어렵다. 정치 현상에 종교 현상이 있고, 종교 현상에 정치 현상이 있다. 종교와 정치에 명확한 선을 그으려는 시도는 인위적이고, 이 세상을 기계적으로 구성된 장난감 세계로 보는 선형적 관점이다.

인간의 역사를 봐도 종교는 항상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종교는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치도 물론 종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세의 교황은 왕을 임명하고 왕을 폐위시키고 전쟁도 했다. 나폴레옹은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성대한 대관식을 치루었는데 교황이 황제의 관을 나폴레옹의 머리에 씌워주려고 하는 순간 나폴레옹은 교황의 손에 있던 황제의 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직접 썼다. 교황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유럽의 역사에서 때로는 교황이 왕권보다 강했고, 때로는 왕권이 교황보다 강했다.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개신교와 카톨릭은 정치에 깊숙히 관여한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카톨릭이었고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개신교였으므로 개신교와 카톨릭의 갈등은 바로 왕권의 갈등이었다. 결국 메리 여왕이 패배했지만 메리 여왕의 아들인 제임스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통합한 최초의 왕이 되었으니 카톨릭의 승리라고 해야 하나? 미국에서 남부 침례교는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세력이고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아예 분리되지 않았다. 마호멧은 칼을 들고 정복하며 이슬람교를 전파했고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 종교는 정치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불교는 어떠한가? 부처님도 왕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불교 최초의 사원도 왕이 직접 지어주었다. 중국에서도 불교가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사원경제가 너무나 비대하여 그 반작용으로 황제가 불교를 탄압하기도 했다. 우리의 경우 삼국 시대에 불교는 정치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고려 시대에는 더욱 그 영향이 확대되어 결국 조선 시대에 불교탄압을 가져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서도 특히 전국시대에는 사찰이 무장하여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공격하기도 했다.

교리집착 정치 본질 훼손
종교 이익집단화 가능해
각계 주장 포용, 불교방향

경전에는 부처님의 정치 이상이 많이 서술되어 있다. 경전에 출가자가 왕이나 국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부처님의 정치 사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불교 신도라면 사회에 유익한 부처님의 정치 사상이 현실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을 설립하고 직접 불교교리를 정치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치와 정책의 영역에서는 옳고 그름의 영역과 상대적 판단의 영역이 있다. 독재, 인권탄압은 옳고 그름의 영역에 속한다. 예를 들어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세습 독재정권을 이어간다거나 고문을 자행하는 경우는 옳고 그름에 관련된다. 흑인은 백인 전용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정책도 옳고 그름의 영역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업을 강하게 규제할 것인지 약하게 규제할 것인지는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다. 복지예산을 증액할 것인지, 산업단지 개발 예산을 증액할 것이지 또한 옳고 그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가치관과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주관적 의견이 개입되는 영역이다.

불교이건 기독교이건 종교를 막론하고 독재나 인권침해 등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는 출가자도 종교교리에 기반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을 강하게 규제할 것인지 약하게 규제할 것인지, 혹은 복지예산을 증액할 것인지 산업단지 개발 예산을 증액할 것인지에 관해서 종교가 교리를 내세워 찬성과 반대를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가치관과 개별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주관적 주장에 불교교리가 동원되면 자칫 종교가 정치에 악용된다.

불교의 경제사상은 자유시장경제이지만 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가 비불교적이고 약한 규제는 불교적이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곤란하다. 아무리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약한 규제가 자유시장경제라는 주장은 불교가 그토록 경계하는 극단적 획일적 사고이다. 경전은 복지 국가를 설하고 있지만 복지예산의 증액이 무조건 불교적인 정책은 아니다. 오히려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세금이 증가하면 복지가 더 증가한다고 믿는 학자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가 결국 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다. 어떤 불자는 복지예산 증액이 불교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불자는 산업단지 개발 예산의 증액이 불교적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이나 네델란드의 기독교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이유는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기독교 사상을 무리하게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불교 정당을 운영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정당을 설립한 후 불교교리를 내세워 치우친 주관적 주장을 고집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부처님이 출가자가 왕이나 국가를 가까이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하신 걱정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따라서 불교 정당의 설립은 아주 예외적으로 매우 한정된 조건과 환경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정치수준이나 사회적 여건이 불교 정당의 출범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

불교정당을 설립하건 설립하지 않건 불교 신도인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가치관과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영역에서 불교교리를 내세워 독선적이고 닫힌 주장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독재라든가 인권 침해 등 명백하게 옳고 그름과 관련되는 영역에서는 문제가 없다.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는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 자신의 주장을 펴되 결국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게 민주주의다.

첫째 출가자의 경우 불교정당을 설립하지 않는 게 부처님의 뜻으로 보인다. 둘째 재가자가 불교정당을 추진할 때는 아주 제한된 조건과 환경 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설사 불교정당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옳고 그름에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면 불교교리를 내세워 치우치고 닫힌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출가자와 재가자는 모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으며 의무도 있다. 선거에 참여해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해야 바람직한 시민이다. 따라서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모든 정치와 정책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교교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불자는 그렇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고려대 명예교수〉



탐욕의 불길 속서 연꽃 피우다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② 대자유인 소동파 거사


중국 쓰촨성 성도 두보초당에 모셔진 소동파 조각상의 모습.

소동파(蘇東坡, 1037~1101)는 이름은 식(軾)이며, 동파거사(東坡居士)라고 불린다. 동생 소철(蘇轍)과 비교해 대소(大蘇)라고도 불리며, 부친 소순(蘇洵) 또한 뛰어난 문장가로 알려져 있다. 당송 8대 문장가 중 한 사람으로 정치가이자, 뛰어난 문인이다. 동파는 시와 글씨, 그림 등 다수 작품을 남겼으며, 대표작으로 '적벽부(赤壁賦)'가 불후의 명작으로 알려져 있다. 당대 문단에서 '큰 별'이라 칭할 정도였다. 그는 좌담을 즐겨하며 친근한 성격으로 문인들과 교류가 많았다.

동파는 22세에 진사 급제를 시작으로 정치인이 되었다. 이때 급진 정책인 신법(新法)을 주장한 왕안석(1069~1076)과 반대파에 속했던 소동파는 지방관으로 좌천되어 항주 지방관이 되었다. 이외에도 동파는 정치적 당쟁에 휘말려 수여 번 좌천을 당했는데, 10여년 간 지방에서 보내면서 문학적으로도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계기였고, 불교를 접하며 진리에 심취했다. 특히 그는 거주하는 곳마다 선사들과 인연되어 선을 접했다.

동파 스스로도 '오월(吳越) 지역에는 명승(名僧)이 많은데, 전부가 나와 친한 이들'이라고 할 정도로 선사들과 교류가 많았다. 또한 그는 혜주(惠州)에 있을 때, 영가나한원의 선사 혜성(惠誠)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에게 선승 10명의 벗이 있는데, 도잠 · 유림 · 원조 · 수주 · 본각사의 일장로 · 초명 · 중수 · 수흠 · 사의 · 문복 · 가구 · 청순 · 법영 등'이라고 말했다. 동파는 10명의 선승들에 대해 "행동은 준엄하면서 화통하고 글은 곱고도 맑다. 지(志)와 행(行)이 수승하며, 교와 법에 두루 통해 있다. 문장과 시 · 가사에 능하여 모두가 붓을 들면 즉시 완성했는데, 한 글자도 다듬어 고치지 않을 정도였다. 문자와 언어에도 깊이 깨달아 이젠 붓으로 불사(佛事)를 하며, 더불어 노니는 사람은 모두 한때의 명인들"이라고 하며, 찬사를 늘어놓았다. 이외에도 동파가 가까이 지냈던 선사가 100명이 넘었다.

소동파에 대해 중국 선사들 사이에 여담으로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다. 동파거사는 운문종 오조 사계(五祖師戒, 운문문언의 손자뻘 제자)의 후신(後身)이라고 한다. 진위 여부를 떠나 소동파가 그만큼 선과 밀접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동파는 신심이 지극하여 영서(嶺西)로 여행할 때, 아미타불을 그려 극락왕생의 증표로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기록이 전한다. 또한 동파 스스로도 이런 말을 하였다.

"내가 고기를 먹고 독송을 하니, 어떤 이가 독송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내가 물로 양치질을 하자, 그는 다시 말했다. '어찌 물 한사발로 씻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부끄럽습니다. 바르게 신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闍利會得)'라고 말했다."

– 〈동파지림(東坡志林)〉 권2 '송경첩(誦經帖)'

그러면 동파가 인연된 선사들과의 법거량을 보자. 동파가 형남(荊南) 지방에 머물 때, 옥천(玉泉) 호선사(皓禪師)의 기봉(機鋒)이 뛰어나다는 말을 들었다. 동파는 일부러 허름한 옷차림으로 선사를 찾아갔다. 선사가 물었다.

"그대는 성이 무엇입니까?"
"성은 칭(稱, 저울)이라 합니다. 천하의 장로들을 다는 저울입니다."
선사는 크게 할(喝)을 하고 말했다.
"이 할은 몇 근인가?" –〈속전등록〉 권20

동파가 호선사의 할에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선사에게 예를 표했다. 또 동파는 운문종 불인 요원(佛印了元, 1020~1086)과는 도와 시를 나누는 절친한 도반이었다. 동파가 황주(黃州)로 옮겨가 살면서 여산(廬山) 귀종사(歸宗寺)에 머물던 불인 요원 선사를 만났다. 어느 날, 소동파가 선사의 방에 들어가니 의자가 한 개만 있었다. 선사가 말했다.

"오늘은 의자가 한 개밖에 없으니, 미안하지만 아무데나 앉으시지요."
"의자가 없다면, 화상의 4대(四大) 육신을 선상(禪床)으로 빌려주시지요?"
"산승이 문제를 낼 터이니 알아맞히면 대관에게 선상(의자)이 되어 주고, 맞히지 못하면 대관께서 허리의 옥대를 끌러 주십시오."
그러면서 동파는 옥대를 풀어 탁자위에 올려놓았다.
"네, 스님 그렇게 하지요."

22세 진사 급제하나 좌천돼
지방 전전… 선사들과 인연
당대 100여 명 선사와 친분
선의 경지 문학으로 표현해

"대관이 산승의 4대 육신을 빌려 앉겠다고 했는데, 그 4대란 본래 공(空)한 것이요, 5온이란 있는 것도 아니거늘(非有) 대관은 공과 비유, 어디에 앉겠습니까?"
결국 소동파가 한 마디도 못하고, 선사에게 탁자 위의 옥대를 주면서 말했다.
"화상께서 자비를 베풀어 미혹한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일체 사량분별을 쉬고 또 쉬십시오."
–〈오등회원〉 권16

또 하루는 소동파가 요원 선사를 찾아갔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좌선을 하는데, 동파가 문득 한 생각이 떠올라 선사에게 물었다.

"스님, 제가 좌선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부처님 같습니다."
소동파는 선사의 말에 의기양양해졌다. 이번에는 선사가 동파에게 물었다. "그럼 자네가 보기에 내 자세는 어떠한가?"
"스님께서 앉아 계신 자세는 마치 한 무더기 소의 똥 덩어리 같습니다."
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동파거사에게 합장했다. 동파는 집에 돌아와 여동생에게 낮에 선사와 대화했던 내용을 들려주며 어깨까지 으쓱거렸다. 한술 더 떠서 그는 자기 자랑까지 늘어지게 하였다. 여동생이 가만히 다 듣고 나서 태연하게 말했다.

"오늘 오라버니는 선사에게 비참하게 패하신 겁니다. 선사는 마음 속에 늘 부처 마음만 품고 있으니 오빠 같은 중생을 보더라도 부처님처럼 보는 겁니다. 반대로 오빠는 늘 마음 속에 탐욕스런 마음만 품고 있으니, 6근이 청정한 선사를 보더라도 똥 덩어리로 본 것이네요."
– 〈오등회원〉 권16

소동파는 동림 상총(東林常總, 1025~1091)의 법맥을 받은 사람이다. 동림 상총은 임제종계 황룡파인 황룡 혜남(1002~1069)의 제자이다. 소동파와 상총과의 법거량을 보자. 소동파가 선사를 찾아와 물었다.

"제가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해결하고자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께서 이 미혹한 중생을 제도해 주십시오."

"거사님은 이제까지 어느 스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여러 고을을 전전하며 스님들을 많이 만났지만, 아직도 공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참 뜸을 들이던 상총이 말했다.

"거사님은 어찌 무정(無情) 설법은 들으려 하지 않고, 유정(有情) 설법만을 청하십니까?"

소동파는 여러 선사들을 만났지만 '왜 무정설법은 들으려 하지 않느냐?'는 상총의 말을 처음 들었다. 무정이란 초목(草木) 등 정신세계가 없는 중생을 말한다. 〈열반경〉에서는 "초목국토인 무정물도 다 성불한다(草木國土 悉皆成佛)"고 하였고, 〈아미타경〉에서는 "물새와 수목(樹木)은 설법에 익숙하다"고 하였다. 선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초목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천지자연과 동화(同和)된 마음자리를 말한다. 동파는 의문을 품고 집으로 가는 길녘에 온 마음을 기울여 선사가 던진 말을 참구하다가 마침 폭포 앞을 지났다. 이때,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크게 깨닫고, 다음 오도송을 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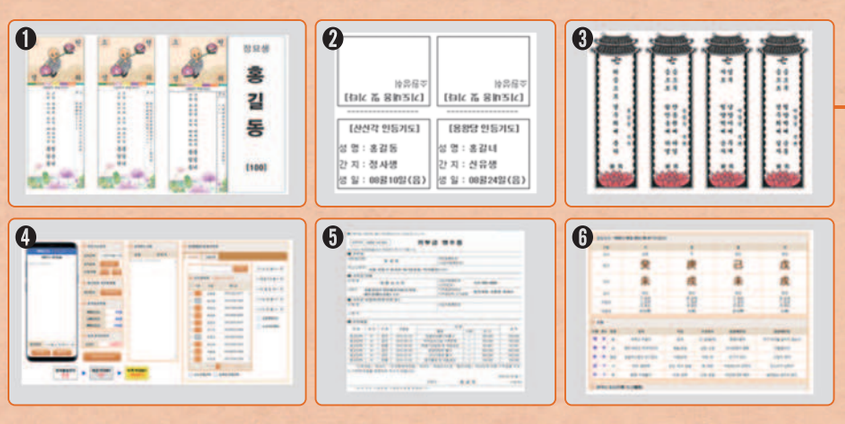
시냇물 소리가 곧 부처님의 설법이요,
산의 경치 그대로가 부처님의 법신이로다.
어젯밤 팔만사천게 미묘한 법문을
후일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겠는가!?
– 〈소식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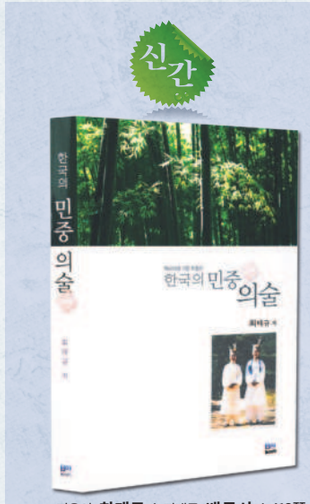
동파는 선사의 말(화두) 씨름하던 중, 시절인연이 도래한 것이다. 이후에도 동파는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다" 등 있는 그대로의 선적(禪的) 경지를 표현하였다. 깨달음의 경지는 신통을 부리거나 저 멀리에 있는 뜬 구름 잡는 것이 아니다. 바로 삶속에서, 삶의 모습 그대로를 여실히 보는 것이다. 〈보등록〉에서는 "산과 시냇물과 대지가 법왕의 몸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하였다. 상총이 말한 것처럼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진리를 설해주건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나 선사들의 깨달은 세계를 표현하는 문구를 '실상(實相)'이라고 하는데, 곧 연기설(緣起說)과 같은 의미이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 법이다. 동파는 인생에 있어 정치적인 불운을 겪었지만, 선사들과의 인연으로 수행의 높은 경지를 터득한 셈이다. 동파는 탐욕의 불길 속에서 연꽃을 키운 선지식이다. 동파의 쓸쓸함이 담긴 시 '우야숙정행원(雨夜宿淨行院)'를 소개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짚신은 명리(名利)의 세계를 밟지 않고,/ 한 잎사귀 가벼운 배, 망망한 물에 띄우네./ 침상 마주하고 듣는 숲속의 밤 빗소리/ 등불도 비추지 않는 쓸쓸한 고요함." –〈소식시집〉 권42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고려 茶 문화 이끈 도당구법승



박동춘의
고려茶 문화, 그 아름다움

② 차 문화 주체 승려 · 사원



구산선문 중 하나인 실상산문 실상사. 마조 · 서당 스님의 법을 이은 승려들이 7개 선문을 세운 만큼 당시 차를 마시며 수행하는 풍토가 익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차와 선 수행의 융합은 불교문화 발전뿐 아니라 차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차에 밝았던 수행승들이 차를 만드는 법(제다법)과 차를 다리는 방법(탕법)의 변화에 미친 영향은 대단했는데, 세상에 알려진 명차(名茶)의 대부분이 사찰에서 전해진 것이라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므로 한 · 중 · 일 차 문화사에서 불교와의 연관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처럼 차 문화를 풍성하게 이끈 자원의 동력을 제공했던 불교계는 무슨 연유로 차와 깊은 관련을 맺게 된 것일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는 달마대사다. 그의 좌선 수행법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수행법의 최대 장애인 수마(睡魔)를 해결하기 위해 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셈이다. 이와 연관하여 설화(說話) 한 편이 전해지는데, 그 내용은 달마대사가 면벽 수행 중 자꾸만 내려오는 눈꺼풀을 잘라 던진 것이 차나무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분명 논리적으로 많은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이는 달마대사의 좌선 수행에서 수마(睡魔)는 최대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를 응용했음을 상징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차는 머리를 맑게 하고 갈증을 해소하며 몸의 기활(氣活)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소화나 술을 깨게 하는 해독 기능이 탁월한 음료였다. 이런 차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응용했던 건 도가(道家)다. 이들은 차를 불로초의 일종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초의선사의 〈동다송〉에도 "술을 깨고 잠을 적게 한다(解醒少眠)"고 말한 바가 있다. 이러한 차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신라에 차가 들어온 시기는 대략 6세기이며 차 문화가 널리 퍼진 것은 9세기 무렵이다. 중국에도 차가 일상생활에 습윤(濕潤)된 것은 당 · 송대다. 파 · 촉 지역은 차 문화의 발원지인데, 이는 왕포(王褒)의 〈동약(僮約)〉에 "무양에서 차를 사 오게 하였다(武都買荼)"고 한 것이나 서진(西晉)의 정치가 손초(孫楚)가 "강계차는 파 · 촉에서 나온다(姜桂荼荈出巴蜀)"고 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염무(顧炎武, 1613~1682)는 〈일지록(日知錄)〉에서 "차는 진나라 사람들이 촉에서 취한 이후에 비로소 차를 마시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是知自秦人取蜀而後始有茗飮之事)"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듯 차는 파 · 촉 지역이 원산지이지만 위진남북조 시대까지도 차를 마시는 풍속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므로 수나라의 대운하 건설은 남북의 문화교류에 획기적인 물꼬를 터준 계기를 마련하여 당나라의 번성과 운하 건설로 인해 남방의 차 문화가 북방으로 퍼져 나갔던 것이다. 특히 8세기에 남방의 선종 사찰에서는 보편적으로 차를 마시며 수행하였다. 이런 사찰의 수행 풍토가 북방 지역으로 퍼진 것은 8세기 중반인 개원년간(開元年間, 713~741)이다. 이런 사실은 당대(唐代) 봉연(封演)의 〈봉씨견문록(封氏見聞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쪽 사람은 차를 마시길 좋아하지만, 북쪽 사람은 처음에 많이 마시지 않았다. 개원년 간에 태산의 영암사에 강마 스님이 있었는데, 선교를 크게 일으켜 선을 닦으면서 잠을 자지 않는데 힘썼고 또 저녁을 먹지 않고 모두 차를 마시는 것에 의지하였다. 사람들이 품에 (차를) 끼고 도처에서 차를 마셨는데, 이로부터 점점 더 본받아 마침내 풍속이 되었다.(南人好飮之 北人初不多飮 開元中 太山靈巖寺有降魔師大興禪教 學禪務於不寐 又不夕食皆恃其飮茶 人自懷挾, 到處煮飮 從此轉相倣傚 遂成風俗)

개원은 당 현종 때의 연호로, 713년 12월 1일에서 741년 12월 22일까지 사용하였다. 당시 태산 영암사의 강마 스님은 남방에서 유행했던 선수행을 북방에 알렸으며 다른 한편으론 차를 마시며 수행하는 풍토를 정착시켰다는 것을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 차가 소개된 것은 6세기 후반으로, 일찍이 백제는 남조(南朝)와의 교류를 통해 양나라의 차 문화를 도입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문헌적인 근거는 또렷하지 않다. 다만 고고학계에서 발굴한 유물을 통해 그 개연성을 추정할 뿐이다.

7세기 도당구법승(渡唐求法僧)들에 의해 차가 들어온 흔적은 〈삼국유사〉에서 보질태자 형제가 매일 배례하고 "이른 아침에 우통수를 길어다 차를 달여서 1만 진신 문수에게 공양하였다(兩太子 並禮拜 每日早朝汲于筒水 煎茶供養一萬眞身文殊)"는 내용이나 남산 삼화령의 부처님께 차를 올렸던 충담선사의 고사(古事)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 무렵 수행승들이 들여왔던 차는 당나라에서 만든 차를 수입한 것으로, 차 문화가 널리 확산하지 못한 채 겨우 부처님께 올리는 귀한 공양물이었다. 차 문화가 어느 정도 확산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9세기 이후다. 당시 왕실 귀족층과 관료 문인으로 음다(飮茶)가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전히 차는 귀한 물품이며,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하사품이었다.

> **茶 국내 도입된 건 6세기 후반**
> **왕실 권위 상징하는 하사품서**
> **9세기 들어 점차 문화로 정착**
> **수행하며 차 마신 수행풍토로**
> **불교계가 茶 문화 확산 주도해**

그렇다면 〈삼국사기〉에 "흥덕왕 3년(828) 입당사(入唐使) 대렴이 중국에서 차 씨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었다(入唐廻使大廉持茶種子來 王使植智異山)"고 한 것은 차 문화의 위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자료인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9세기경엔 차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라에서 차를 생산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려면 차에 밝은 계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신라 말 도당구법승의 귀국은 차를 잘 아는 전문가를 확보한 셈인 것이다.

특히 수행 중, 음다(飮茶)가 일상화되었던 도당구법승(渡唐求法僧)은 다사(茶事, 차를 만들고 다리는 전반적인 일)에 밝았고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정보와 능력을 갖췄던 전문인이다. 물론 당나라의 신문물인 차를 접할 수 있었던 계층으로는 숙위(宿衛)학생, 사비 유학생 및 사신들, 상인계층이 있었다. 대개 이들은 해로를 통해 당나라로 들어갔다. 9세기경 일본 승려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의하면 구법승들은 산동반도의 등주(登州)나 절강의 명주(明州)에 도착하여 각자의 목적지로 향했는데, 신라방은 구법승들의 구법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도당구법승은 당나라로 유학했던 승려들을 말하는데, 이들의 역할론은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여야 하지만 먼저 신라 왕실의 구법승들에 대한 관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라 왕실의 불교문화 수용은 적극적이었다. 그러므로 당나라에서 새로운 문물을 익힌 주체자로,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줄 지혜를 갖춘 구법승에 대한 대우가 극진했다. 특히 왕이 몸소 구법승을 맞이하고 왕사로 대접하는 등 이들에 대한 대우가 극진했던 것은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신라 왕실의 열망이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그뿐 아니라 도당구법은 구법승 개인적인 학구열로 인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종교, 정치, 문화적인 발전의 필요에 따른 국가사업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8세기 도당구법승들은 천태, 율학, 화엄학, 유식학, 밀교 등 다양한 종파에 관심을 두었다. 원광국사(圓光國師, 555~638), 자장율사(慈藏律師, 590~658), 의상대사(義湘大師, 625~702) 등은 신라에 돌아와 불교 발전에 이바지한 승려였고, 귀국하지 않은 채 당나라에서 불법을 선양한 원측(圓測, 612~696), 무상(無相, 680~756), 지장(地藏, 695~794) 등과 같은 수행자도 있었다.

대개 이들은 6~8세기경 구법을 통해 신라 불교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승려들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차와 불교의 융합이 초기 단계였고 승단(僧團)의 음다(飮茶) 문화가 아직 단단하게 정착하지는 못했다. 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행의 토대를 구축한 건 9세기 무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차 문화 유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구법승은 선불교에 영향을 받은 수행승인 것이다. 특히 혜능선사(慧能禪師, 638~713)가 개창한 남선종에 영향을 받은 구법승들이 차 문화 유입에 적극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말여초(羅末麗初) 구산선문(九山禪門)을 새로 세웠던 구법승 중에 7선문이 마조(馬祖, 709~788)와 서당(西堂, 735~814)에게 법을 받은 승려들이다. 이들은 수행 중 차를 마시며 수행하는 풍토에 익숙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귀국 후 이들은 차 문화를 확산한 구심점으로써 차 문화를 주도한 그룹으로 부상된 것이다.

고려가 건국된 후, 차 문화는 사원과 승려들은 차 문화를 이끌 명분과 기반, 그리고 실력을 갖춘 것이다. 고려시대가 차 문화의 융성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힘은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다. 더구나 사원의 풍부한 경제력도 차 문화를 아름답게 꽃피운 요인이었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출강 및 통신 2020학년도 29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29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기술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0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임제가 깨달음 얻은 인연은…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③ 황벽의 매를 맞고 떠난 사연

행록(行錄)은 임제의 수행이력을 설해 놓은 장이다. 이 장에는 먼저 임제의 깨달음을 얻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임제가 황벽 문하에 가서 수행할 때이다. 임제의 정진하는 자세에 감동한 한 수좌가 임제에게 물었다.

"스님은 이곳에 온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3년 되었습니다."

"황벽선사에게 가서 법을 물은 적이 있는가?"

"아직 없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라서 못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핵심 대의입니까? 하고 물어 보게나."

임제가 황벽선사를 찾아가서 시킨 대로 물었다. 그러나 묻는 말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황벽 스님은 주장자로 임제를 때렸다. 임제는 맞고 그냥 나왔다.

수좌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다. 임제는 "저의 묻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장자로 저를 때렸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시 가서 물어보도록 하게"

임제는 다시 황벽 스님에게 가서 법을 물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장자로 때렸다. 똑같이 임제는 세 번을 물으러 갔다가 세 번을 맞았다.

임제는 황벽 회상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 수좌에게 가겠다고 말했더니 수좌는 가더라도 하직 인사를 드리고 가라고 권하였다.

임제가 황벽에게 하직 인사를 갔을 때 황벽은 임제에게 말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자네는 고안(高安)의 강기슭에 있는 대우 스님의 처소로 가라. 자네를 위해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거야."

임제는 대우선사를 찾아갔다. 대우선사가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황벽 스님의 처소에서 왔습니다."

"황벽 스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제가 세 번이나 불법의 대의를 물었다가 세 번이나 방망이를 맞았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황벽이 그렇게 친절하게 자네를 위해 잘 지도했거늘 잘못을 모르겠다니?"

임제는 대우 스님의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는 중얼거렸다.

"황벽 스님의 불법이 별거 아니군."

이를 본 대우 스님은 "이 오줌싸개가 아까는 잘못이 있느니 없느니 하더니 이젠 황벽의 불법이 별 것 아니라고? 네가 무슨 도리를 알았느냐? 어서 말해 봐."

임제는 대우의 옆구리를 세 번 쥐어박았다. 대우는 떨쳐버리고 "너의 스승은 황벽이다.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상이 임제의 대오인연(大悟因緣)을 설한 부분이다.

행록에는 임제 스님이 여러 스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이 중 방(棒)으로 유명한 덕산 스님을 만났을 때다.

덕산 스님이 오늘은 피곤하다고 말하자 임제가 무슨 잠꼬대를 하고 있습니까? 한다. 덕산 스님이 곧 방망이로 쳤다. 임제 스님은 덕산 스님이 앉아 있는 선상을 넘어뜨려버렸다. 덕산은 가만히 있었다.

임제 스님이 운력(작업)을 하면서 광이로 땅을 파다가 황벽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광이를 세운 채로 서 있었다. 황벽 스님이 보고 "이 사람아, 피곤한가?" 했다.

임제가 "괭이도 들지 않았는데 피곤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황벽이 방망이로 때렸다. 임제는 방망이를 빼앗아 황벽 스님을 밀어 넘어뜨렸다. 황벽 스님은 유나(維那)를 불렀다 "나를 좀 일으켜 주게."유나스님이 다가가 일으키면서 말했다. "화상께서는 어찌 저 미친놈의 무례함을 용서하십니까?" 황벽 스님은 일어나서 유나스님을 방망이로 때렸다. 임제 스님은 괭이질을 하면서 말했다.

"제방에서는 화장을 하지만 나는 여기다 산채로 묻어버린다." 이것이 '활매(活埋)' 의 이야기이다.

마지막 장 탑기(塔記)는 임제 스님의 탑을 세우면서 쓴 기록이다. 함통(咸通) 8년(867) 임제가 입적한 후에 문인들이 대명부 서쪽에 탑을 세웠고, 당시 황제 의종이 혜조(慧照)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탑기는 제자 연소(延沼)가 쓴 것으로 되어있다. 〈조계종 고시원장〉

마음이 맑으면 곧 '정토'



세상 속 경전읽기

③ 자성미타(自性彌陀) 유심정토(唯心淨土)

10여 년 전 고성 건봉사(乾鳳寺)에 들른 적이 있다. 1998년 8월, 건봉사 제6차 염불만일회 입재 때 청화 스님 법문을 듣기 위해 처음 찾았던 곳으로, 두 번째 방문이었다.

금강산 건봉사는 남한에 존재하는 유일한 고구려 사찰로, 520년(고구려 안장왕 2년) 아도(阿道) 화상이 창건할 때의 절 이름은 원각사(圓覺寺)였다. 758년(신라 경덕왕 17년) 발징(發徵) 화상이 중건하고, 정신, 양순 등 31인의 승려와 향도香徒 1,828인이 참여한 한국 최초의 〈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를 베풀었다. 만일이면 대략 27년 5개월이 된다. 787년 만일회향 때에는 염불만일회에 참여했던 스님 31인 모두가 염불 가피로 극락에 왕생하였다. 그 뒤 참여했던 많은 신도들이 차례로 왕생했다고 하며, 이때부터 건봉사는 아미타 도량이 되었다. 1358년(고려 공민왕 7년) 나옹(懶翁) 화상이 중건하여 건봉사로 개칭하여 염불과 선, 교의 수행을 갖춘 사찰이 되었다고 한다. 발징화상의 염불만일회 이후 1,000년 이상 지난 조선조 후기에 제2차~제5차 염불만일회가 이루어졌다.

1950년 한국전쟁 때 대부분 건물이 불에 타 완전 폐허가 되었으나, 넓은 가람터와 여러 단의 석축(집터)이 대가람이었음을 말해준다.

불이문을 지나 밋밋한 길을 오르다 보면 19개의 돌계단이 나온다. 돌계단 끝에 올라서면 좌우에 석주가 있다. 우측(북쪽) 석주에는 '방생량계(放生場界)', 좌측(남쪽) 석주에는 '용사활지(龍蛇活地)' 라고 한자로 새겨져 있다. 석주의 다른 면에는 십바라밀(十派羅蜜) 문양 중 일부인 원월(圓月;보시), 좌우쌍정(左右雙井;방편), 성중원월[星中圓月;지(智)] 등이 새겨져 있다.

석주 뒤로 연지(蓮池)가 펼쳐진다. 연지 건너에는 일자 건물인 낙서암(樂西庵)이 있다. 법상종에서 십바라밀이 보살 십지에 배대(配對)되니 이 연지를 보살지(菩薩地)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돌계단을 경계로, 계단 아래 하계(下界)는 예토(穢土)이고 계단 위 상계(上界)는 피안의 정토(淨土)인 셈이다. 보배연못(보련지寶蓮池)을 향한 19계단 중 18계단을 오르며 근진식(根塵識) 18계(界)의 번뇌를 하나하나 소멸하여 마음이 청정해지면, 19계(階)에 도달한다. 19계(階)는 생사를 해탈하고 성범불이(聖凡不二)의 '방생량계' 에 진입하는 발판이다. 상계(上界)인 '방생량계' 는 용과 뱀, 곧 성인과 범부가 둘이 아닌, 활력이 넘치는 '용사활지' 이다.

이쯤에서 '放生場界 龍蛇活地' 의 뜻을 다시 되새겨볼 만하다. '이생[異生;중생 또는 범부]이 탐닉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18계(界)를 놓아버린 경계에서, 용[龍;성자, 보살]과 사[巳;범부, 중생]과 함께 사는 곳' 이라는 뜻이다. 즉 이곳은 10바라밀을 닦는 보살이 사는 곳이며, 동시에 보살이 있도록 하는 중생이 함께 사는 곳이다.

〈유마경〉 '불국품' 에서, '마음이 맑으면 곧 정토' 라고 하여 유심정토(唯心淨土)를 역설하였다.

"만약에 보살이 정토(淨土)를 얻고자 하면,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이 깨끗함을 따라서 곧 불국토도 깨끗하니라."[若菩薩欲得淨土當淨其心°隨其心淨則佛土淨]

〈육조단경〉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미혹한 사람은 염불하여 저 곳에 나려고 하지마는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이 깨끗함을 따라서 부처의 땅[정토(淨土)도 깨끗하다' 고 말씀하셨느니라."[迷人念佛生彼。悟者自淨其心。所以言佛隨其心淨則佛土淨。]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㊾ 이해의 길 29

윤회, 믿을까 말까?

언젠가 출가의 연을 맺은 벗이 전생의 내 모습이 보인다며 전화를 한 적이 있다. 그 친구는 전생에 내가 티베트의 학승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놀랍기도 했지만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다. 벗의 말처럼 내가 전생에 승려였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이는 검증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을 믿을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삶의 내용과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업과 윤회가 불교의 고유 사상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불교가 태동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인도의 고유 신앙이다. 그들은 착하게 살면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에 태어난다는 지극히 소박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불교는 그들의 신앙을 수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특히 부파불교에 이르러 업과 윤회는 하나의 학설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이 반복된다는 윤회설은 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업이라는 행위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결과가 바로 윤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파불교에 이르면 전생과 내생이 실제로 있다고 보고 지옥이나 아귀, 축생의 세계 등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그들은 인간의 삶이 4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부파에서는 태어나는 순간인 생유(生有)와 삶을 영위하는 기간인 본유(本有), 삶을 마치는 순간인 사유(死有), 그리고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인 중유(中有)를 설정하였다.

윤회와 관련해서 중유라는 과정이 주목된다. 이는 사람이 죽은 후 살면서 행한 선업과 악업을 계산하는 시간인데, 보통 10일에서 49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49재(齋)를 지내는 모습도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이 기간 동안 한 사람의 전체 삶이 평가되고 그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도윤회(六道輪廻), 즉 지옥과 아귀, 축생, 수라, 인간계, 천계가 바로 그것이다. 살아서 선한 행위를 하면 죽어서도 선한 결과를 받고 현생에 악한 행위를 하면 내생에도 악한 결과를 받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윤회설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무조건적으로 믿게 되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생의 업이나 팔자 탓으로 돌릴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삶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또 다른 형태의 숙명론일 뿐이다. 언젠가 개신교로 개종한 한 불자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사람은 힘든 일이 있으면 절에 가서 상담을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전생의 업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전생의 업 때문이라는 말이 상처가 되어 불교를 멀리하게 되었고 결국 개종까지 했다고 한다. 윤회에 대한 무조건적 믿음이 가져온 결과인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언제부턴가 윤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들은 힌두교의 산물인 업과 윤회사상을 불교에서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윤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붓다가 강조한 무아(無我)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이를 삐딱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자칫 붓다가 부정한 영원불변하는 아트만(Atman)을 인정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을 오히려 윤회에 대해 새롭게 성찰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윤회와 관련해서 죽음 이후의 문제는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이를 실존적으로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음속으로 우리는 매 순간 윤회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누군가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마음은 이미 금수와 아귀, 수라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깊은 명상 속에서 고요를 느낄 때 그곳은 천계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윤회설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그것을 사실이 아니라 상징으로 해석하면 불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불교는 무조건적 믿음에 철학적 메스를 가하는 합리적 종교다. 윤회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다. 그리고 그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중·대형 사찰들의 치명적 실수

고가의 바가지 음향시설에 복잡, 불필요한 엉터리 부속을 잔뜩 채움으로 1.사용불편 2.고장많음 3.저질소리 4.원인은 산사 스님들의 어두운 정보력을 이용한 업자들의 농간 때문!

염불은 청아하고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음율에 염불을 실려야 하며 천수경을 수 천번 반복해도 절대로 재탕 시비 안하는 원인은 오직! 소리 가락에만 심취하기 때문!

최신 디지털시스템의 장점 : 1.기존시설과 현장소리 비교시 장난감 차이! 2.가격 1/3 , 3.원하는 소리만드는 기능 내재, 4.설법은 성우소리! 5.염불은 마이크와 2m에서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 6.최신 간편 간단시스템으로 앰프다루기 1초! 고장없음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방문시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장기할부 가능)

▣ 소리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HITEC 하이텍사운드전자 대표 박 공 희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77호 | 17 | 전면광고

잘 덮인 지붕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행이 잘된 마음에는 욕망이 스며들
틈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전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창원 문수사 공양주,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사찰운영 및 운전가능 하신분
창원시 합포구 교방남4길 95-8 문수사
010-3132-9666

찰라지간에 성불하는 비법안내!!
- 해인삼매를 터득하면 즉신성불한다.
- 믿음은 법신불에 대한 믿음이다.
- 발 보리심은 법신불로부터 받는 것이다.
- 시공을 초월한 신통력자가 된다.

안내서를 보내겠습니다.
010-7131-7084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부산 도심 사찰 스님이 되고자 하시는분 도심포교 할수 있는 분 모십니다
010-3885-8989

벼락맞은 대추나무 진품(眞品)
부처골 지장선원
010-8585-4908

정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5계를 철저히 지키는(채식, 금주, 금연) 조계종 소속의 독신 포교사로서 생활불교 실천을 위한 불교수련원, 불교요양원 건립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실(대여) 선우를 찾습니다.
(무상보시는 원치않습니다.)
해월산 在禪 합장
010-7572-5358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인연을 찾습니다
작은(기도터)비구니스님 무속보살님경남최고명산
- 37세(여) 경찰공무원
- 57세(여) 전문대졸

결혼할남성
010-3257-5182

?
특수한 기도비법을 스님께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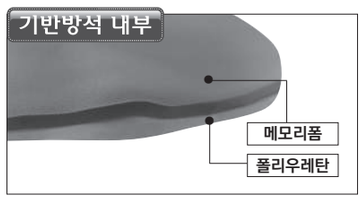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 매주 화요일, 수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 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2)2004-8216 / 010-3747-8692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 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 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의 한 종류로,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 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108염주 세트 40,800원(무료배송)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계좌안내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02)2004-8216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문의 |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77호 | 18 | 전면광고

맷돌이나 숫돌이 깎이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땐가 다 닳아 없어지고, 나무를 심으면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새 크게 자란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선림보훈》에서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광진불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외
◎ 매가 : 27억 5천

◎ 위치 : 강원도
◎ 부지 : 7000평
◎ 법당 : 30평, 외
◎ 요사 : 60평, 외풍광보장
◎ 매가 : 20억 5천만원정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50평 ● 요사 : 65평
- 대지 : 5백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010-4547-499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사찰 안내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토굴 안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소재 토굴양도
- 법당, 산신각, 요사채 각 1동
- 가액 : 3천8백만원
- 문중땅 도지세 1년 20만원

010-5714-7872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3층건물중 3층(약70평)
- 삼존불, 원불280불, 산신각
- 보증금 1천만 / 월 60만
- 시설비 : 협의후 결정

010-2125-4684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 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 / 2층 공양간 / 3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사찰 안내

- 위치 : 창원역 15분. 마금산 온천 5분 거리. 신도시 개발지 인접 ● 대웅전(단청완료). 삼성각. 주지상담실(황토방). 요사채. 공양간. 대형 저온창고 대형창고 2개. 차고. 주차장 500평 ● 총면적 : 6,200평 ● 사찰 투자가치 35억 상당(신도시개발로 땅값상승함) ● 가액 : 13억(대출금5억 포함) ● 계약시 3억 주시면 등기부등본 이전해드림. 잔금 5억은 5년간 연차적으로 불사금으로 완납가능
- 신도시 개발로 4차선 30%진행중
- 대형버스 진입 공사 2차선 연결중

010-9647-0723

도심속 사찰명당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대지 : 262평
- 건물(판넬주택) 50평, 거실, 주방, 방2, 화장실, 조경, 주차시설완비
- 가액 : 9억3천만원(절충가)

010-2051-2588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교원 안내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입구
- 5층건물중 3층, 40평, 방2개, 주방, 화장실2개
- 전세2천만, 월세 40만, 시설비1천5백만
- 삼존불(소불104위)에어컨일체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010-8503-576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 입구
- 2.3층 30평씩 2층법당 3층공양간
- 보증금1천5백 / 월57만
- 시설비 절충

010-8339-5525

사찰·기도(터)안내

- 위치 : 김해 선암다리 5분거리
- 토지 : 270여평,법당,요사,종각
- 창건24년,시세평당 350만
- 가액 : 7억5천(은)2억2천포함
- 밀양 초동. 토지 : 1136평. 관리지역
- 가액 : 1억6천 (은)1억5천

010-9906-3631

도심속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앞산밑
- 대지 200평, 법당 40평, 방 2(각방 화장실비치)
- 종무소, 공양간 10평, 실외화장실 남, 여,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방문후 결정.

010-3422-323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 360평 ●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억 8천만원

010-4583-4895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 앞, 옥상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1,900만원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99만원

02-957-0824
010-7409-049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 부곡시장윗시장상가2층 (약35평)
- 삼존불/후불탱화/신중탱화
- 보증금 2천만 월40만
- 시설비 협의후 결정

010-9430-1356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상남면오산3길 29 ● 대지 175평, 요사 30평(방3,주방, 거실,다용도실,욕실,에어컨,엠프 등 최적의 시설완비) ● 법당 대웅전 15평 (에어컨, 엠프 등 시설완비), 외부화장실(남,여), 창고 5평 ● 수려한 조경과 태양광 설치로 전기세 월 5천원
- 가액 : 2억 5천만원(대출금 1억포함)

010-8947-6370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석문동길 149-88번지
- 법당1개, 요사채2개 밭5천평, 산2만천평
- 가액 : 5억원
- 아래에 봉화댐 조성중

010-5421-7624

입종 안내

〈불교조계종〉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T 02)511-2026~7 | F 02)511-2028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연엽산자락
- 대지 : 150평. 전1,050평
- 건물 : 25평(경량철골구조) 창고 : 6평, 마을끝 자락 위치. 조경완료. 비구니스님최적
- 가액 : 1억7천만원

010-3518-3958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2004-8216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5분거리
- 관악산, 까치산 청정도량
- 재래시장 인근, 이동인구 많음 4층건물 중 2층 3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 시설 권리금 없음

010-3657-9590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부산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309번길 16(2층) ● 약 40평(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산신탱화, 소불) ● 큰방1개, 큰거실겸 주방, 화장실 큼, 옥상 사용가능, 시설 깨끗하고 완벽 ● 보증금 2천만, 월 40만 ● 시설비 1천3백만(절충가)

010-3389-8133

사찰(급)다용도 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 대지173평, 임야(밭)39평
- 건축 : 1층식당 7평(32평6홉) 방5개, 거실1, 실내화장실3개, 실외2개, 2층다용도(삼존불)외 논17평5홉
- 상수도, 용천수, 산천수(풍족)
- 가액 : 2억9천만원(절충가능)
- 농협은행 1억7천만원 담보대출

010-9612-1022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 -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임 불교기자협회장에 신성민

1월 13일 선출… "회원 유대 강화"



제21대 한국불교기자협회장에 현대불교신문 신성민<사진> 취재부장이 선출됐다.

한국불교기자협회는 1월 13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이 같이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수석부회장엔 밀교신문 김보배 기자, 차석부회장엔 BTN불교TV 이석호 기자가 선임됐다. 아울러 부장단 인사는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으며, 2019년도 결산보고와 2020년도 사업승인 등이 진행됐다.

신성민 신임회장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회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불기협 회원사와 회원 간 교류와 유대가 예전 같지 않다. 이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성민 회장은 2004년 12월 주간불교에 입사했으며, BTN불교TV 보도국을 거쳐 현재는 현대불교신문사 취재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불기협 홍보차장, 총무부장,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고창불교회관 5월 개관"

고창 선운사, 교구종회서 밝혀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는 1월 13일 선운사 설법전에서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구종회는 보고 및 공지사항, 2020년 교구예산과 2019년 교구결산 심의, 교구 선거관리위원 선출, 기타 교구발전을 위한 사항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선운사가 건립한 고창불교회관은 5월 중 정식 개관할 예정"이라며 "개관 초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이 기대되는 만큼 교구종회의원 스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부대중의 협력을 당부했다.

교구종회에서는 부의장에 정호 스님(강천사)과 진성 스님(내소사)이 선출됐다. 또 교구 선관위원으로는 도완 스님, 대선 스님, 일묵 스님, 종범 스님, 자영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우수사찰 표창에서 종무행정 우수사찰은 문수사 · 내소사, 포교 우수사찰 좋은절, 불사 우수사찰 만일사 · 성불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선운사는 교구종회에 앞서 대웅보전에서 운기당 성원 대종사 38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대우 스님, 법현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1898년 고창군 해리면에서 출생한 운기 스님은 석전 스님의 법제자이자 전강제자로 선운사 주지와 백양사 강원 강주를 역임하는 등 후학의 교육에 전념하다 1982년 세납 84세, 법랍 68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카슈미르 · 간다라 불교학의 고향"

Interview

간다라불교 강연하는 권오민 교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월 12일부터 5주에 걸쳐
장충동 문화살롱 '기룬'서
아카마지 기획 강연 진행

"카슈미르나 간다라를 들어본 적 없는 불자는 아마 드물 겁니다. 그럼에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불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흔히 불교학의 고향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활동했던 인도 마가다나 나란다 지역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불교학의 고향은 카슈미르와 간다라입니다."

아비달마불교를 연구해온 권오민 경상대 철학과 교수가 그간의 간다라유적 탐방을 거쳐 정리한 간다라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대중강연으로 풀어낸다. 2월 12일부터 5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2층 문화살롱 기룬에서 열리는 아카마지 기획 강연에서다.

권 교수는 앞서 2015년에 파키스탄 일대를 여행하면서 카슈미르와 간다라유적을 순례했다. 이 과정을 언론사에 연재하고, 못다 한 이야기를 최근 출간한 〈불교학의 고향, 카슈미르와 간다라를 가다〉에 담았다. 이번 강연에서는 카슈미르와 간다라가 어떤 이유로 불교학의 고향인지 조목조목 짚어 설명할 예정이다.

"카슈미르는 실크로드 위에 있어 동아시아로 들어오는 불교의 전초기지이자 아비달마의 본산입니다. 아비달마에서는 논리를 첫째로 여기는 불교죠. 반면 간다라는 정서에 호소하는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무착 · 세친보살 등 초기 인도불교를 대표하는 논사들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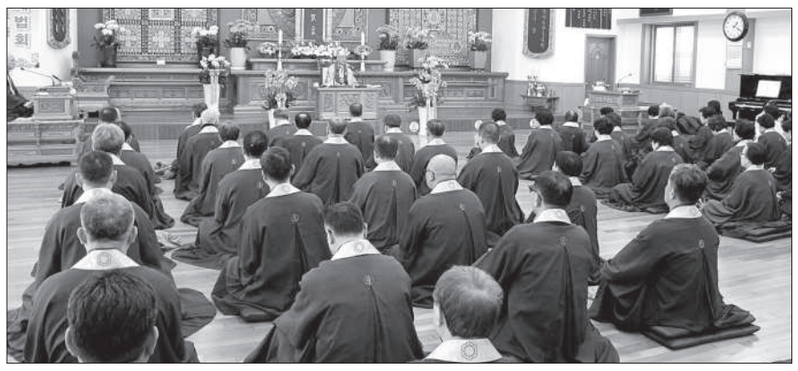
권 교수는 카슈미르와 간다라가 불교학의 고향인 근거로 '결집'을 꼽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한 뒤 제자들이 왕사성 부근 비파라산 칠엽굴에 모여 가르침을 정리한 제1차 결집, 100년이 지나 바이샬리에서 700여 비구가 모인 제2차 결집, 아소카왕의 주선 아래 1000여 비구가 인도 파트나 지역에서 삼장을 정리한 제3차 결집, 그리고 카니슈카왕에 의해 간다라지역에서 제4차 결집이 이뤄진다. 여기서 티베트불교는 카니슈카왕의 결집을 제3차로 보기도 한다.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결집을 간다라라는 산골에서 한 이유를 찾습니다. 현장 스님은 마가다나 나란다의 불교학이 훼손됐다고 봤습니다. 외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다라에서 결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다 지역에서 특정 논서가 저술됐다는 근거는 드물지만, 온갖 구법승들의 기록에는 카슈미르와 간다라지역에서 어떤 논사가 어느 책을 썼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권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불교학의 고향, 카슈미르와 간다라 △카슈미르, 아비달마 비바사의 산실 △간다라1-탁실라, 불전문학 비유문학의 산실 △간다라2-페샤와르, 불교논사들의 고향 △불연의 땅 스와트를 주제로 5주에 걸쳐 간다라불교를 소개한다. 참가비는 회당 2만원이다.

"모든 시작은 청정에서 출발"

불교총지종, 총지사 서원당서 대중 모여 신년하례법회 봉행


불교총지종 신년하례법회에서 종령 법공 대종사가 법어를 하고 있다.

정통 밀교종단 불교총지종은 1월 15일 총본산인 서울 역삼동 총지사 서원당서 신년하례법회를 열고 종도 화합과 종단 재도약의 각오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종령 법공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우선 지난해 종단을 위해 애쓴 여러 스승님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저도 올해에는 총본산에 와서 새해 서원 불공에 동참했는데, 한명도 낙오자 없이 끝까지 회향하는 종도들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지난해에는 우리 종단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올 경자년에는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꾸준히 정진해 나간다면 어려움이 기대 이상의 성공으로 결실을 맺어 좋게 회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공 대종사는 "올 경자년을 뜻있게 회향하기 위해서는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새롭고 알차게 1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며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의 청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선한 마음, 건강한 생각, 깨끗한 정신으로 용맹정진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우리 종단이 창종 50년을 맞이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해"라며 "어느해 보다도 모든 종도들이 힘을 모아 불퇴전의 각오로 정진하며, 교화에 한발짝씩 더 앞서 나가자"고 결연한 어조로 당부했다.

한편 정통 밀교종단 총지종은 1월 6일부터 12일까지 총본산인 서울 역삼동 총지사를 비롯해 전국의 40여곳 사원서 펼친 '총기 49년 새해대서원 불공'을 성공리에 회향했다. 이번 불공에서는 하루 네 차례 전 교도들이 참여하는 사분정진을 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태고종 중앙종회 분과 구성

1월 14일 선암사서 1차 연찬회 개최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는 1월 14~15일 순천 선암사에서 제15대 중앙종회 1차 연찬회를 개최하고 총무분과 · 교육분과 · 문사분과 · 재경분과 · 법사분과를 구성, 각 분과별 위원장을 선출했다. 종회의장 법담 스님은 "종단과 한국불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도출된 과제를 이행하자"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성사, 조현대 신도회장 취임

1000여 사부대중 모여 축하인사 전해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영제)의 신임 신도회장으로 선출된 조현대 회장이 1월 1일 신년하례회에서 공식 취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태종 원로위원 도산 스님, 대성사 주지 영제 스님, 이태훈 달서구청장, 류병선 조계종 중앙신도회 수석부회장과 신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조계종승가원 시무식

승가원장 정인 스님 "화합 · 발전 진력"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승가원장 정인)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1월 13일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승가원장 정인 스님은 "먼 길을 마다 않고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게 돼 대단히 반갑다"며 "승가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종도 스님에게 회향하겠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탈종공고

• 법 명 : 법천(속명 / 박성유)

• 주 소 : 부산 동구 망양로 685번길 80

본 사찰과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한국불교달마종 무량사 공고 제2020-1호

한국불교달마종 무량사 2020년 천불전 회향법회 공고

복지도량 무량사를 창건한지 어언 21년이란 세월속에 승려로서 부처님의 부름을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무량사 불자님들은 스님이 혼자서 고민하고 위덕대학교에서 노인관련 논문으로 약속했던 어르신을 위한 요양원 운영은 부처님 부름의 약속을 이해할 것이라 믿습니다.

한사람의 지극한 서원이 불국토를 이룬다고 하였으니 저마다의 간절한 기도로 부처님의 자비감응과 가피력이 항상 함께하여 장차 이 땅이 감로원천으로 화하여 모든 중생들에게 안락한 불교 복지도량이 되고 불자들의 복전이 되기를 발원하며 제21회 천불부처님 회향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아 래

■ **회향법회 일시** : 2020년 **2**월 **2**일(음력 1월 9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무량사 설법전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393번길 111-96
■ **전 화** : 054-261-7737 / 010-7588-7737

2020년 1월

釋迦如來遺敎弟子 六十八世法隱 太雄 合掌



최훈동의
마음 사용 설명서

② 명상의 첫걸음

분노 조절 묘약, '思惟'
〈사유〉



2-1 마음을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인 명상에 대해 걸음마를 떼겠습니다.

소파나 의자에 편안하게 앉고 눈을 감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호흡이 느껴진다구요? 그렇군요.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는데 유일하게 움직이는 건 호흡이군요. 호흡에 집중하여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세요.(1분)

2-2 호흡에 집중하려 하니 방해꾼이 있군요. 예, 잡념들입니다. 잡념들을 보노라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고 있음을 봅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이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이군요. 과거의 생각들은 후회나 비난 원망 등이고 미래 생각은 걱정이나 불안 두려움 등이군요. 현재 당면한 일이라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예측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예행 연습을 하고 있지 않나요? 어제 생각했던 것들(사람, 일, 사물 등)을 반복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곤 합니다. 생각에는 감정이 동반되고 있군요. 후회 비관 불안 두려움 원망 등 좋은 감정보다 어두운 감정들이 많군요. 잡념을 걷어내기 전에는 명상하기가 어렵군요.

우리는 흙탕물인 대야를 가지고 논 적이 있습니다. 흙탕물을 빨리 가라 앉히려고 흔들어 대면서 '가라앉아라' '가라 앉아라' 외쳐 봅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더 혼탁해졌지요. 마침내 가만 내버려 두고 놔두면 저절로 가라 앉은 경험이 있습니다. 잡념을 없애려 들면 더 산만하고 잡념이 드세지군요. 그러니 그냥 놔두고 바라보면 되겠군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웃음). 하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몸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만큼 마음에도 관심을 두고 시간을 낸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매일 꾸준히 해야겠군요.

2-3 이제 똑바로 허리를 세우고 온몸의 긴장을 풀고 이완하여 앉아 봅니다. 들이쉬고 내쉬면서 긴장을 풉니다. 호흡을 바라봅니다. 긴장만을 풀려면 소파나 의자에 푹 안겨도 좋습니다만 호흡을 바라볼 때는 엉덩이를 최대한 의자 뒤에 붙여서 허리나 등을 기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발은 바닥에 안정되게 붙이고 앉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분명히 바라봅니다. 명상의 출발은 호흡 바라보기입니다.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고 호흡을 바라봅니다. 어느새 잡념 속으로 빠져 있군요. 괜찮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린 순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호흡을 명상의 기준점으로 삼으세요. 호흡을 보노라면 호흡의 모양새가 보입니다. 긴지 짧은지, 무거운지 가벼운지, 거친지 부드러운지, 불편한지 편안한지, 빠른지 느린지, 들떠있는지 차분한지,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등 현재 호흡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또다시 잡념 속으로 빠졌다구요? 바로 이게 마음의 현주소입니다. 마음은 늘 이렇게 과거로 미래로 현재로 분주히 돌아다니는군요. 이리저리 산만하게 돌아다니지요.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떠오르는 생각들은 과거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 대한 기억과 감정들이 잡념을 이루는 기초가 되어 있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도 예측하고 있지 않나요? 또 실패할까 봐 또 상처 받을까 봐 미리 예행 연습하느라 에너지(심기)를 소모하고 있군요. 현재 가장 관심 있는 대상에 묶여 그것에서 주의가 떠나지 않군요. 대상이 사람이든 사건이든. 그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면 그 대상에 묶여 지냅니다.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차지하고 하루도 그것을 떠날 수 없다면 예속되어 있다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게임이건 도박이건 술이건 섹스건 분노건 비탄이건 반복해서 묶여 있다면 그 대상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고 자유가 없군요. 사실 중독은 반드시 쾌감만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과거의 아픔으로 말미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좌책감, 외로움, 절망감을 피하기 위해 쾌감을 주고 금방 고통을 잊어 버리게 하는 대상이면 모두 중독의 대상이군요. 결국 중독의 본질은 불쾌한 경험, 불쾌한 감정이군요. 좌절감 분노 두려움 무가치감 등 그 감정들에 온통 주의를 뺏기고 있군요.

2-4 명상은 이러한 주의를 의도적으로 되돌리는 훈련입니다.

회광반조(廻光返照)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부 대상(사물, 일, 사람)으로 향했던 주의를 내면으로 되돌리는 것이지요. 밖으로 뺏기던 에너지가

잡념 · 졸림이 명상 방해해
자기 心身 보면 장애 소멸
긍정 마음상태가 명상 도와

내부로 향하니 에너지 소모가 없습니다. 명상을 하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피로 회복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명상은 주의를 과거 회상이나 미래 걱정에서 현재로 돌리는 연습이지요. 물론 발이 저리고 쑤시고 결리고 몸이 가만 앉아 있기를 거부하며 불편함을 없애려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아니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명상을 시작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반갑잖은 손님들이지요.

잡념 통증 졸림. 이 셋이 가장 명상을 가로막는 방해꾼이군요. 명상 좀 하려고 결심했건만(웃음).

이들로 인해 짜증나고 마음은 불편해져 이 상황으로부터 도망치려 듭니다. 이렇게 마음이 몸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 이렇게 마음이 반응하는구나. 불편을 피하고 편하려고 하느구나.

그런데 호랑이를 잡으려면 도망가서는 불가능합니다. 용기를 내어 대면해야 됩니다. 대면한다는 것은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통증이 오면 통증을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졸리면 졸림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만 일어나고 싶은 충동도, 쾌감과 편함으로 향하는 마음도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이지요. 몸과 마음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관찰 대상일 뿐, 방해꾼이 아니군요.

명상 대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외부의 무엇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귀의(自歸依). 자기자신에게 의지하라.

붓다는 결코 다른 것에 의지 말고 자기를 명상 대상으로 삼으라 하셨지요. 물론 자귀의의 또 다른 깊은 뜻도 있지만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5 이렇게 명상을 5~10분씩 해나갑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길게 하는 것보다 5분씩 여러 번 수시로 하는 게 좋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심이고 이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표를 정해야 가능합니다. 명상하는 목표. 마음공부하는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고 몸과 마음에 예속된 삶, 욕망과 분노에 지배 받는 삶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가 명확히 서야 합니다. 목적지도 없는 여행은 방황이지요(웃음). 몸과 마음을 사용하고 부리는 진정한 주인이 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고 강력하지 않으면 조그만 불편에도 못참고 감각적 쾌락과 충동에 휩쓸리는 노예(중독) 상태로 다시 복귀하지요. 늘 그날이 그날이고 잡념은 잡념이고 갈등하고 번민하는 괴롭고 편치 않은 일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틀렸어' '변할 수 없어' '끝이야' 라고 결론 내린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2-6 분명한 의도는 긍정적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바라본다는 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발만 아프다. 오래 앉으면 온몸이 결리고 쑤신다. 긴장이 풀릴 줄 알았는데 몸살이 났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불평들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은 서투르고 힘들지 않나요? 자전거 배울 때도 넘어지고 다치기까지 하다가 제대로 타게 되고 나중엔 두 손을 놓고도 자유자재로 타지 않나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한지 명상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자꾸 물어야 합니다. 목표가 확고하고 의도가 분명하면 어떤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목표를 향해 전진합니다. 오뚜기가 되기 어렵다구요? 우린 모두 오뚜기였습니다(웃음). 돐 무렵 어린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걸 보면 소파에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딛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곧장 다시 일어나서 또 한발 딛고 넘어지는데 조금도 화내거나 창피해 하거나 싫증도 안 냅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를 반복합니다. 마침내 여러 걸음을 걷게 되고 아장아장 걷게 되지요.

걷는데 몰입하여 마침내 걸음마를 숙달시키는 것과 자전거 타는 법은 마음 공부법과 똑같습니다. 물론 훨씬 어렵고 긴 노력이 필요하지요(웃음).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이렇게 바른 노력을 하지 않고서 극적인 묘법이 있을까요?

2-7 이제 서서히 눈을 뜨고 (이미 눈을 뜨셨나요?) 천천히 섭니다. 이제 걷기 명상을 해보겠습니다.서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앞의 어느 지점까지 걷고 멈추고 돌아서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물론 돌아서서 시작한 출발점으로 오면 다시 멈추고 돌아섭니다. 걷기 명상도 앉기 명상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자각 상태에서 걸어 보세요. 왼발 오른발이 분명히 바닥에 닿는 느낌에 주목합니다. 2분 정도 이렇게 걷다가 발을 들어올리고 내려놓는 이단계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2분 정도 이단계로 걷다가 이제는 한걸음이 들어올림-내밈-내려놓음의 세 단계로 이루어짐을 자각하면서 2~3분 천천히 걸어보세요.

어린 아이처럼 이해 관계를 따지지 않고 실망이나 좌절도 하지 않고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명상해나가는 거지요. 조금씩 앉는 시간과 걷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명상을 통해 얻는 즐거움들을 맛보게 됩니다. 긍정적 마음 상태를 맛보면 이제 좀더 명상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됩니다.

감정이 일렁일 때마다 즉각적인 표출 대신 잠시 멈추고 명상 모드로 들어가 보세요. 우리는 늘 즉각적인 반응과 판단 평가를 해오곤 하였지요. 명상은 이 일상(과거)의 틀에서 벗어나는 훈련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요. 일상 모드가 과거에 매인 암울하고 단조로운 삶이라면 명상 모드는 현재와 미래를 즐기고 늘 새롭게 살 수 있게 안내합니다.

이렇게 즉각적 반응 대신 숙고적 반응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멈추고 바라보고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앉아서는 호흡을 바라보고 서서는 걸음을 바라보고 바라봅니다. 이 바라보는 훈련이 집중력과 관찰력을 키워줍니다. 늘 비교 판단하고 평가만 해오던 삶은 어려운 일에 부딪치면 과거의 망령에 묶여서 도피나 투쟁으로 해결책을 사용하려 듭니다. 명상 모드는 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합니다. 즉각적 충동적 반응에서 숙고적 반응이 된다는 것은 내 안의 지혜가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지요. 숙고가 뭐냐구요? 명상 모드에서 고요히 사유함입니다. 산만하고 헝크러진 마음 상태에선 보이지 않던 게 분명하고 단순해지면서 해결책이, 치유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욕망에 끄달리지 않고 분노를 조절하는 묘약입니다.

〈한별정신건강병원장〉





대행 스님

사람의 마음이 걸려서 걸리는 거지 진리는 걸림이 없다

큰스님 … 공생으로서 공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만날 찧고 까불고 찧고 까불고, 예전에 선지식들이 "야, 구더기 놀듯 하는구나." 이랬듯이, 우리가 그렇게 놀아서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 이 좌석에서 이렇게 했듯이 바로 오늘이 삼천 년 전 그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가 살아 있는 한 항상 부처님은 계신 거지 오시는 것도 없고 가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질문할 분 없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아나가면서 실험을 통해서 공부한 얘기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도 바로 보살행입니다.

사회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문자1(여) 애기 아빠가 삼재가 들어 있다고 그러면서 삼 년 동안 뭐가 있대요. 그 안에 뭘 해도 안 되고. 우리 애기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깐 주위에서 그래요, 이사를 가라고.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요, 시골에 우리 땅도 좀 있고 또 애기 앞으로 보상금이 나오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보태 가지고 집을 살까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애기 아빠가 삼재가 들어서 집을 살 운도 안 된대요. 그리고 제가 그 집에 지금 살면서 수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술을 하면 제가 위험한 것도 있다 해서 괜히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기 절에만 자꾸 오고 싶고, 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뜻도 잘 모르지만 답답하면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어디서 듣고 오니까 그냥 답답하네요. 제 생각에는 집을 살까 했었거든요. 집도 살 운이 안 된다 하니깐 그렇게 되면 이사를 가도 또 세를 살아야 돼요. 우리 애기에게 나온 그 보상금은 될 수 있으면 땅에나 집에다 좀 묻고 싶었는데…. 보태도 그 돈 갖고 집은 못 사니까 시골에 있는 논밭을 좀 팔아서 할까 했지만 부모님 말씀이 그러니깐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답답한 말씀을 전합니다. 좋은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큰스님 지금 보살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여러분이 다 들었지만 하치않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가정에서든지 횡횡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높은 말을 하는 것보다도 이런 구질구질한 생활에서 돌아가는 말들을 타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에서 삼재가 들어서 집도 못 사고, 벌이할 운도 못 되고 또 이사 갈 운도 안 되고 이렇게 한다면 아니, 부처님 법이 그렇게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 말을 곧이듣는, 속는 당신도 그르지만 그렇게 일러 주는 그분도 그릅니다. 그런데 그분도 모르니까 그러겠지 알면 그럴 리가 없죠. 당신도 모르니까 또 그걸 곧이듣고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지, 알면 그거 들으러 갈 것도 없고 또 듣고 그것을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그걸 듣고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보살님, 들어 보십시오. 보살님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사 가려면 그냥 가는 것이 법이요, 내가 집을 살 처지가 된다면 집을 그냥 사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게 부처님 법입니다. 여러분의 법이 부처님 법이에요.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진실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무슨 이사를 가면 나쁘다 좋다, 내년이 나쁘고 올이 좋고 또 삼재가 들었고…. 삼재가 도대체 뭐 말라빠져 죽은 게 삼재입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삼재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삼재가 들면 그렇게 나쁘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한생각 먹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올해 삼재가 들어서 누구든지 죽는다고 그러는데 몸이 지금 아픕니다. 내가 그래도 몸이 건강했는데 삼재가 들었다고 그러는 해에 아, 그거 보고 와서 얼마 안 돼서부터 병이 들어서 이렇게 아프니 이걸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백 일을 기도를 드리고 또 백 일을 드리고 또 백 일을 드려야만이 삼재를 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자 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분이 잘못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다고 하는 것도 모르니깐 그러겠지.' 하고 역시 그 보살님한테 그랬습니다. "백 일씩 세 번 드리는 것도 삼 일이면 세 백 일이 돼."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 달린 거지 삼천 년을 천 년으로 해도 되고 천 년을 하루로 해도 된다 이거야, 응? 그래서 '한 울 천' 했다 이거야. '한 울' 이면 하늘과 땅, 인간을 그냥 합해서 '천' 으로 했다 이거야. 그럼 천이 하나다 이거야. 일심이다 이거야. '한 울' 이 이렇게 한데 모아서 '천' 했으니까 그게 하나로도 돌아간다, 일심으로 돌아간다 이 소리나 똑같은 얘깁니다.

그러니 삼재는 삼재가 따로 있고 삼재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보살님, 죽지 않으면 되고 병 앓지 않으면 돼. 그리고 이사를 가도 내가 일요일 날 식구가 다 모여서 아주 순수하고 편안하게 먹을 거라도 지어 가지고 놀러 가는 것처럼 이사를 가거라. 허허허…. 아니, 왜 날짜를 정해 놓고 그날이 좋다고 해서 남자들은 하나도 없는 새에 고생을 하느냐? 내 마음의 부처가 모든 부처라면, 이 세상의 모든 일체 만생 만물이 다 내 한마음에 들어 있다면 구태여 어디 걸릴 게 있느냐? 그러니 내가 가는 날은 너무나 좋은 날이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내가 오늘 가면 좋겠다 하면 그 날이 좋은 날이다. 뭐든지 걸리지 말고 하세요." 그렇게 했더니만 금방 그 소리 듣고요, 병도 사흘도 못 돼서 나았어요. 병도 나았거니와 그해에 얼마나 장사가 잘됐는지 말입니다, 삼재가 들어서 죽긴커녕 장사가 잘돼서 아주 고맙다고 시주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바로 자기가 자기를 그 속에서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 보살님도 그 속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마음이 벗어나면 육신도 편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허이구, 살기도 바쁘게 벌어다가 애를 쓰고 그랬는데 그 보람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질문자1(여) 우리 애기 아빠도 마음이 약해지고 또 저 역시 마음이 약해지다 보니깐 '아, 그럼 진작에 절이나 어디 나가서 저거 했으면 혹시 그런 거를 안 당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실 애기 아빠하고 전부 다 가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그렇게 뭐, 삼재가 들어 있다고 그러고, 또 우리 어머니도 시골서 보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애기 아빠가 지금 약을 먹어도 안 듣고 그래 가지고 의료원 가니깐 전염성 노이로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증상이. 우리 애기가 이렇게 되니까 약을 먹는 자기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보름인지 뭔지 모르고….

큰스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사람 나쁘게 만드네, 그거. 그렇게 해 가지고 남 노이로제 걸리게 만들잖아!

질문자1(여)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기 전부터 오래됐어요. 귀에서 소리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 게. 그래 가지고 동네 약국에서 약을 먹어도 안 듣고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까지 가서 약을 먹다가 우리 애가 그런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자기 마음에서 병이 온다는 식으로 약을 먹어도 모르겠다 그거예요. 아무 약 반응이 없고.

근데 그때 보름날인데, 큰스님 얼굴이 어느 날 아침 새벽녘 꿈인지, 하여튼 얼굴이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제 꿈속에. 그래서 '내가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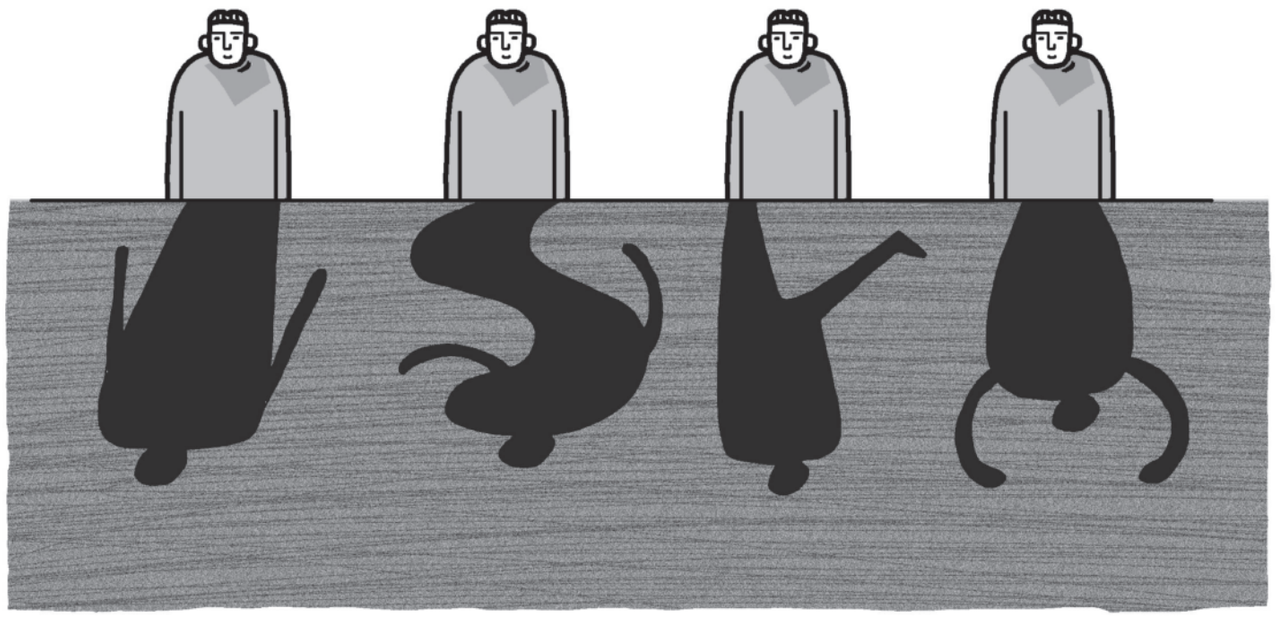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삼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어제부터 절에 가고 싶었는데 오늘 꼭 가야겠다.'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아휴, 가야지.' 하고 왔더니 그날이 보름이었고 '내가 참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한 걸 전부 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불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는데, 제 마음의 답답한 걸 다 얘기했더니 그 당시서부터 마음이 좀 개운하고 애기 아빠 몸도…. 저는 약을 먹어서 듣는다는 것보다 제가 그렇게 빌었기 때문에 애기 아빠 몸도 좀 낫고 그런 것 같아요. 저녁으로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세 식구가. 그런데 잠도 잘 오고 그래요.

큰스님 그거 참 좋은 일이군요.

질문자1(여) 그래서 오늘도 어머님 전화가 그저께 왔다고 애기 아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실 안 들으면 약인데 들으니까 마음이 영 안 좋아요. 우리 애기가 그런 사고를 당했지, 또 어서 그 집에서 이사를 가라고 그러지. 이사 가야만이 제가 수술을 해도 괜찮지, 안 그러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집에서 산다 해서 그 의사가 나를 뭐, 생명을 어떻게 잘못되게 할 건 아닐 거고. 참 그게 의문스럽고 저는 뭐, 믿지는 않는데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깐 그게 좀 걸려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스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큰스님 그러니까요, 여기 나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밤에 잘 주무시고, 인제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잘 주무시고 편안하시다니까 너무나 감사하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가고 그런다는 거는 끔찍한 일이고, 모든 것이 당신 생각하기에 달려 있는 거니까 아예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모든 거를….

질문자2(여) 큰스님께 그저 두서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다섯째 자식이 의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절에 같이 나가자고 설득을 하는데도 잘 안 나오고 이래서 어제저희 내외가 애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같이 나오자 해도 안 나오고 그 의심증을 또 품고 있어요. 그리고 밤으로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제가 혼자 다니면서도 자꾸 공을 들이고 밤잠이나 우선 잘 자게 해 달라고 했더니 잠은 좀 자요. 그래서 조금 나은 것 같다가도 자꾸 저런 소릴 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또 설득을 해서 자주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큰스님 그거야 날더러 물으실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본인의 마음에 달린 거니까요. 그건 어머니가 그렇게 나한테 물으실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더러 마음을 잘 먹으라고 그러십시오.

질문자2(여) 그런 부탁은 백 번도 더 하지요, 허허허….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러면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여기 나오신 지 며칠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잠이라도 잔다니 고맙고요. 하여튼 잠은 잘지언정, 만약에 병이 낫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은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저 될 수 있으면 자주 나오라고 그러십시오.

남자분들이 한 번 더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질문자3(남) 저는 『도』라는 책을 보고 스님의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동물하고 얘기를 하고 바다의 물고기한테 전도를 했다는데 '한국에도 그런 분이 계시구나.' 해서 이렇게 뵈러 왔습니다.

전 아침저녁으로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합니다. 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의 며느리는 천주교엘 나가요. 마루에다가는 십자가를 걸어 놓고 있고 전 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며느리보고 "야,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가 있어. 신앙의 자유가 있고, 헌법상. 우리 집안에도 자유가 있어. 넌 너대로 성당에 나가고 난 나대로 내 공부를 한다." 그러고, 아침저녁 집에서 저는 시간이 있는 대로 금강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속으로 하면 흥이 안 나서 음성을 높여 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또 며느리가 그걸 들으면 좋은가 나쁜가 하고 한쪽으로 마음이 좀 두근두근거리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영적인 면에서 어떠한 충돌이 있어 가지고서 혹여나 가정불화가 생기면 어떡할까.' 그런 느낌이 혹 날 적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큰스님 여느 절에서는 그런 질문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그게 질문이냐고 그러고선 주장자만 탕탕 치고선 그냥 높은 말씀 몇 마디 해 주시고 아마 일어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높은 스님, 높은 부처가 되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아주 가난하다면 나도 마음이 가난한 그 틈에 끼어서 서로 토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 같으면 말입니다, 며느리가 천주교를 믿든지 내가 불교를 믿든지 그 마음으로서 듣기 좋게 "야, 우리 한 가정에서 화목하게 한 군데로 나가자." 이렇게 위에서 존엄성 있게 말씀 한마디 웃으며 하시면서, 나쁘게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마디 당겨 놓고 마음으로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십시오.

맡겨 놓으시고, 선생님 하시는 것도 경을 봐서 소상히 이걸 따지지 마시고, 경을 보되 그것을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고 함이 없이, 책이 나를 보게 하지 마시고 내가 책을 보지 마시고 그냥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는 항상, 살아나가는 생활도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당신한테, 공한 당신한테 공한 이치를 다 놓으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런다면 그 며느리도 차차 한 번만 데리고 와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 아주 참신한 사람이 될 겁니다. 며느리도 또 그렇게 미련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걸리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 걸려서 걸리는 거지 진리는 걸림이 없는 겁니다.

질문자3(남) 그런데 스님, 금강경은 아침저녁 독송을 하거든요. 독송을 하는데, 이 공부가 통 여일히 되질 않는 거 같아요.

> 내 내면세계의 참나인 주인공을 믿고 물러서지 않고
> 거기다 모든 것을 몰락 맡겨 놓을 수만 있다면
> 바로 그 가운데서 내 참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큰스님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 얘기 또 해야 되겠군요. 옛날에 어느 도량에서 학인들이 결제가 되면 한 절에 모여서 참선을 하든가 경을 읽고 해제가 되면 또 나가서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나가서 공부를 하다가 결제가 돼서 다들 들어왔는데, 그 절의 주지 스님께서 "너희들은 무슨 공부를 하고 들어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전부 무슨 경을 읽었다 무슨 경을 읽었다 하는데 한 분만은 "너는 무슨 공부를 했느냐?" 하니까 "저는 잠자고 밥 먹고 똥 싸고 있었습니다." 하거든요. 그렇게 똥 싸고 밥 먹고 잠잤다고 하는 말에 "예, 이놈!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잠만 자고 똥만 싸고 그렇게 했으니 너는 부목이나 해라." 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래 부목을 하면서 나무를 들고 패서 스님 방에 불을 때느라고 그 앞을 자꾸 돌아다니거든요. 그럴 때에 스님께서 노래를 했답니다.

어쩌다가 벌이 말입니다, 벌 있죠? 벌이 어쩌다가 방에 들어가서, 그건 입산한 걸 말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벌이 방에 들어가서 유리가 반사가 되는 거를 보고 그것이 문인 줄 알고 자꾸 입으로다가 거기를 쪼니까 고만 입이 뭉그러져 떨어졌거든요. 쪼다가 몸이 떨어지니까 입도 떨어지더라. 그게 아니라 말이 떨어지더라는 얘깁니다. 몸이 떨어지니깐 입도 떨어지고 입이 떨어지니깐 말이 떨어지더라는 얘깁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 몸으로, 사량으로 책을 보고 이론으로다가 이거를 알고 그런다면 이 몸이 없어지면 그것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참 내면세계의 참나를, 참나인 주인공을 믿고 물러서지 않고 거기다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만 있다면, 몰락 맡겨 놓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내 참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사량적인 마음으로 물질을 보고 그것을 글자 풀이를 하고 그러면서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은 진짜 금강경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경을 읽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경을 누가 읽나?' 그것을 찬찬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누가 읽고 있을까?' 하고.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방에서 서로 토론하는 거보다 외려 좀 어색한 것 같죠, 처음이 돼서요. 내가 저 가운데로 갈까요, 요담에는요?

대중 가운데서 네.

큰스님 허허허…. 그럭해서 내가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좋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죽는 길에도 나는 같이, 아니 둘이 아니니깐 그냥 여러분이 죽으면 나도 같이 있죠, 뭐. 허허허…. 몸이 죽고 사는 게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셋째 일요일 날은요, 아주 우리가 둥글게 앉아서, 가깝게 앉아서 진지한 토론을 서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질문자4(남) 근데 큰스님한테 질문을 하지 않고 보살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제 견해를 얘기해도 되는 거죠?

큰스님 그렇죠. 질문만이 아니에요. 질문만이 아니라 여기 와서 느끼고 자기가 살아나가는 얘기 해도 좋습니다.

질문자4(남) 조금 전에 여기 보살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제가 조금 느낀 게 있어 가지고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삼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큰스님께서도 얘길 하셨고 제 나름대로 느꼈습니다마는 저도 어렸을 적에 사실 무당들이나 점 보는 데 출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나이 들어 결혼해서도 많이 다녔고요. 그런데 "삼재가 들면 운이 나빠서 죽는다." 그러면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도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사실은 이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이 좀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아주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전설의 고향'을 잘 봅니다. 그것이 다 부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빼놓지 않고 보는데 제가 삼 년 고개를 봤어요. 삼 년 고개는, 삼 년 고개서 한 번 넘어지면 죽더라고요. 삼재가 들어서 죽으나 삼 년 고개서 넘어져 죽으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열 번 구르니까 삼십 년을 살고 사십 번 구르니까 구르는 대로 살더라고요. 그거와 마찬가질 것 같아요. 전설의 고향에서 본 거를 말씀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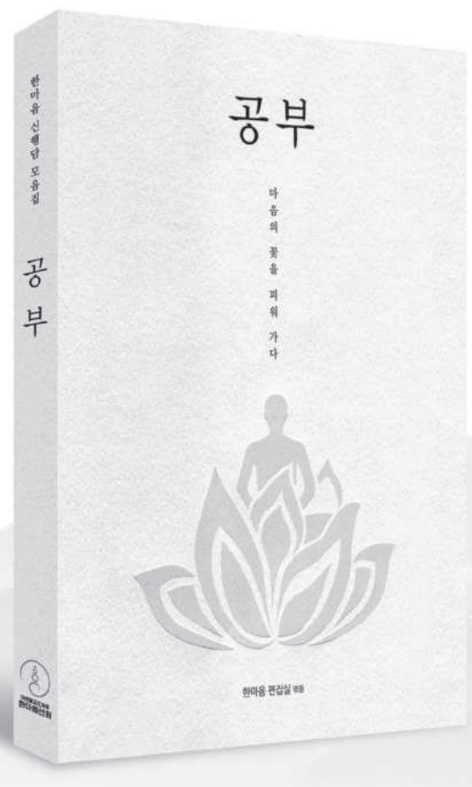
큰스님 허허. 그래서요, 그 삼 년 고개를 봤다니깐, 그 얘기를 하니깐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삼 년 고개서 넘어지면 삼 년만 살고 죽는다 이랬는데, 한 번 넘어지고 삼 년을 잘 산다 이랬으면 아마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삼 년을 한 번 넘어지고 '에라, 또 한 번 넘어지자. 또 한 번 넘어지자.' 이럭하고선 구 년을 좀 잘 살고, 구 년이 아니라 참, '이 구정토에서 세세생생 내가 살 거다. 잘 살 거다. 죽는 것도 없이 사는 것도 없이 나는 영원히 살 거다.' 이랬으면 영원할 것을 괜히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 그렇게 믿고 그렇게 물러서지 않는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 주인공, 자기 보배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면 그 보배가 스스로서 활용이 되고 스스로서 온 누리…. (녹음 안됨) 이 삼천대천세계의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립니까? 아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글쎄? 일체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까지 형성시켜 가지고 자기 주인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부처님들이 살고 계신데 어디를 감히…. 하하하.

요다음에 또 한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웃을 수 있고 재밌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참…, 아프면 의사도 될 수 있고 뭐, 판사도 될 수 있고 자기가 자활할 수 있는, 생동력 있는 자유인이 됩시다.

※위 법문은 1986년 1월 5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춤의 초상화

둘이 춤춘다
오직 둘이다

어쩌다가 너가 사라졌다
또 어쩌다가 나도 사라진다

이제는 춤이 춤을 춘다

다시

산이 되고
물이 되었다

이 그림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 그림의 가치를 잘 몰랐다. 이런 류의 그림이 더러 있고, 이 그림이 다른 그림들과 비교해서 독특하거나 정교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갔을 때는, 눈이 내려서 주변의 산들이 온통 흰색으로 덮여 있어서 그랬는지, 이 그림 앞에 서는 순간, 그 주변의 다른 그림들은 안보이고, 이 그림만 보이는 특이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짧은 몇 초의 시간이었지만, 그림과 하나가 되어 버렸다. 그러다가 뇌세포 하나가 새롭게 눈을 뜨는 것 같았다. 이 그림은 다른 그림들과 서로 연결되어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이 그림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느낀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경험하였다. 그 경험을 계기로 이 그림은 나에게 선택된 그림이 되었다. 사실은 이 그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림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그럴 것이다. 개인 개인의 인생이 다 소중하고, 순간 순간의 삶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암각화를 새긴 솜씨도 군더더기 없이 간명적절하다. 예리하면서도 무게감이 있는 도구를 써서, 여러 번 찍지 않고, 한번이나 두 번 정도 찍어서, 바깥 윤곽선을 그려내는 숙련된 솜씨도 훌륭하지만, 빈 공간에 딱 두 사람만 그려내고 만족하는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② 고암 스님

"마음적 생각이라야 영구합니다"



고암 스님의 서신.

〈서신1〉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노성원 거사님 이대원성 보살님, 보리가 익어가는 계절을 맞이하여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청안하여 항시 부처님 믿는 생각 갈수록 더욱 견고하여 불교적인 생활로 자녀들을 잘 키워가며 올바르게 정진을 부지런하면 진불자(眞佛子)입니다. 많이 권유합니다.

먼저 봄에 최고의 보약을 20첩이나 짓고 많은 차비까지 가지고 두 아이를 데리고 부산역까지 나와서 오래 기다리다가 만났을 때 선물을 주셔서 잘 받아가지고 와서 보약을 다려 먹고 많은 기운이 생하여 음식도 잘 먹고 차비도 잘 쓰고 다니면서 마음에 고맙고 감사함을 금할 수 없어 오면서 부처님께 축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또 미역을 보내주시어 일부러 가지고 이곳에 와서 대중공양을 잘 하는 중입니다. 더욱 감사한 말씀은 다 할 수 없어서 그저 관세음보살께 비옵니다.

서로 멀리 있어도 우리 불자들은 언제나 마음이 통일되어 생각하는 것이니 다음은 무엇이나 물질로 보내줌을 폐지하십시오. 마음적 생각이라야 영구합니다.

거듭 말씀드림은 부처님 생각만 간절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안녕히 계시기만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고암 스님(중앙)과 대원성보살(왼쪽).

주소가 일정치 못하고 자주 왕래하오니 무슨 선물이나 보내지 마십시오. 재차 부탁드립니다.

1975년 5월 말일 설악산 윤고암 합장

이때 스님께서 아이들 한 번 보고 가면 좋겠다고 하셔서 온천장에 부산역까지 스님 뵈러 갔는데 그만 조금 늦어 5분 전에 기차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상좌스님과 우리를 만날 생각으로 어둠이 밀려오는데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새마을도 없었던 때였고 무궁화호 비둘기호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래 걸릴 때는 기차로 12시간이 넘도록 가야 서울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한 번 놓치면 다음 차를 타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도 기다리고 계셨으니 죄송한 마음을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스님께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아이들 보고 가니 다행이지" 하시며 힘든 내색하지 않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이 밀려오곤 합니다.

스님께서는 남에게 무엇이든 받는 것을 폐가 된다고, 또 빚이 된다는 생각으로 싫어하셨고 절도 늘 한 번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서신2〉
나무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아명은 영준으로 함
노성원 이대원성에게

이 무더운 삼복 날씨에 두 분 몸 건강하시고 마음이 안정하시여 하시는 일이 원만리 번영되옵고 여식 근영이와 아들애기 모두 몸 충실히 잘 자라기만 비옵니다. 이곳은 두루 잘 있습니다. 금번에 보내신 미역은 잘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절 선방 스님 강당 학인 모두 백여 명 대중에 원만히 공양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옥동자 아들이 탄생하셨으니 참으로 반갑고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잘 불러주십시오. 음력 6월 말일 안으로 부산에 가려고 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71. 8.1 고암 회답 해인사 용탑

둘째 아들이 71년 6월 18일 태어났을 때 스님께 보고하며 얘기 이름을 부탁했을 때 답신으로 온 편지입니다.



불기 2564년

새해맞이 촛불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촛불을 켜는 것은

현실에 살면서 닥치는 대로 과거를 멸해버리고

현재에서 미래를 자꾸 융성시키고 증장시키면서

영원토록 꽃 피고 열매 맺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촛불 하나가 과거와 미래를 한데 합쳐서

현실에 놓고서 두루 비추는 영원한 밝음입니다.

- 대행선사 법어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2020년 1월 25일 ~ 27일까지 (음1.1~1.3) (오전) 10시 30분 — 사시 예불 후 합동 천도재 (오후) 5시 30분 — 저녁 예불 후 촛불재 (당일은 매우 혼잡하오니 종무소에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